

# Weekly KISS



- 1일 1시간 1등급 습관. 더 완벽해진 구성
- 최고의 평가원 기출문제 로직 해설지(기출 문제집 구매할 필요 없음)
- EBS 선별, 분석 그리고 변형(내신 및 N제용)
- EBS '간접연계' 반영 문항(사실상 비연계)
- 매일매일 어법 1문제
- 매주 교육청 하프모의고사
- 현 절평영어 시대의 가장 완벽한 콘텐츠, 주간 KISS와 함께 1등급 쟁취

# Shean.T



- 고1 당시 영어 모의고사 5등급
-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 4년 장학
- 국내파 통역장교, 4성장군 통역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
- 최초 수능영어 주간지, 주간 KISS 저자
- 오르비 베스트셀러,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 저자
  
- 인강) 대성마이맥
- 현강) 대치 이강, 강남/대치 오르비, 서초/대치/분당 명인



- 검토: Chong Hyun, Eun Gi, Hyun Jin, Jae Hwi, Jun Seo, Seung Gi, Yun Cheol
- 디자인/편집: Chae Hyeon, Seong Gyun, Seung Mi

# Hi Guys!

## ① 주간 KISS란 무엇인가요?

주간 KISS는 *Keep It Slow but Steady Wins the Race*, 즉, 질평영어 시대에 '최소한의 꾸준한' 공부로 수능날 안정적 1등급을 쟁취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1일 1시간 1등급 습관을 추구합니다. 국어 수학과 달리, 질평인 현 수능영어는 '평가원 기출(적어도 5개년)'을 마스터하고, 여기에 **적당량의 N제**만을 곁들여 1등급을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하기도 하지요. 주간 KISS는 현 EBS 연계 비율, 방식(50%, 간접연계)을 반영하여 '평가원 기출'의 완벽한 학습에 중점을 두면서, 올해 EBS 교재의 '핵심 지문' 변형문제와 이에 대한 간접연계 문제(사실상 비연계)를 N제로 학습할 수 있게 기획한 주간지입니다. 평가원 '외' 영어 N제를 풀 거라면(평가원 기출 마스터가 먼저!), 올해 수능에 유사한 소재가 나올 수 있는 좋은 EBS 지문의 변형문제와, 이 소재를 반영한 간접연계 문항을 N제로 쓰는 게 좋다는 게 선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신'을 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내신 대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매주' 교육청 하프모의고사가 실력 점검용으로 들어가니, 주간 KISS만 제대로 따라온다면, '양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풀커리는 총 20주의 주간지와 3회의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평가원 기출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닌 정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수능 영어 1등급을 위해 충분한 어휘력, 그리고 해석력이 갖춰져야 함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한 지문의 문제를 풀고, 그 평가원 지문의 어휘, 해석, 논리를 모두 얻어가셔야 합니다. EBS가 수능영어에 직접적인 의미가 없어진 만큼(정확히는 6평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최소 5개년 이상의 평가원 지문들로 어휘, 해석, 논리를 총체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이를 대비해온 주간 KISS는, 최고의 평가원 기출 학습지를 제공합니다. 평가원 6개년의 거의 모든 주요 문항에 대한 상세한 KISS Logic 해설을 제공하고, 스스로 로직과 어휘, 어려웠던 문장을 학습할 수 있는 스스로 자가 학습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평가원의 논리는 다른 사설의 그것과 분명 '결'이 다릅니다. 이는 제 N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간 KISS는, KISS Logic을 바탕으로, 이 평가원 논리에 대한 가장 상세한 해설지를 제공합니다.

### ③ EBS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6월 평가원에서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이제 EBS 영어는 ‘내신’에는 중요하고 ‘수능’에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국의 고등학교에서는 EBS 영어로 수업을 나갈테니 내신에는 중요하고, 수능에는 EBS 중오 지문의 ‘소재’가 비슷한 지문이 여럿 보이는 정도일 겁니다. 다만, 평가원 ‘외’ 문제를 풀 필요를 느낀다면, 수능에 나올 지문과 아무런 관련 없는 문제보다는, 소재라도 비슷하게 나올 문제를 푸는 게 좋다는 선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가원 영어 출제 지침에는 분명 ‘배경지식’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고, 국어와 영어에서 어떤 소재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스키마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시험장에서의 이해도에 분명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라 내신과 수능을 모두 대비하는 고3, 수능만 대비하는 N수생 친구들 모두에게 적당량의 EBS 선별 변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출 다음의 우선순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④ 기타 어떤 문항들이 수록되어 있나요?

EBS 시작 전, 첫 2주에는 평가원과 함께 KISS N제가 수록됩니다. KISS N제는 지난 수년 간 축적해온 KISS 문제 중 우수 문항, 그리고 선티가 신뢰하는 출제자로부터 새롭게 공급받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공급받는 문항에는 신유형 ‘의미 추론’도 다수이니, 많이 수록하려 합니다. EBS가 시작되면서는 1일 1 EBS 지문 원칙으로, 해당 EBS 지문의 킬러 유형 변형과 어법 변형, 해당 지문의 간접연계 문항(사실상 비연계, 기존 KISS N제 or 새롭게 선티 출제 or 새롭게 공급받은 문항)이 평가원과 함께 구성됩니다. 또한, 매주 ‘교육청 하프모의고사’가 해설과 함께 부록으로 나가며, 7월에는 사관학교 대비를 위한 사관학교 기출도 섞을 예정입니다.

### ⑤ 하루(Day)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EBS가 아닌 주에는 KISS N제와 사관학교 기출이 섞여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닌 평소에는 보통 평가원 기출 2문제, EBS 킬러 변형 1문제, 어법 변형 1문제, 간접연계 문항 1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원 기출 문제는 해설 페이지에 더하여 다시 한 번 로직과 어휘를 체크할 수 있는 자가 학습 페이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 ⑥ 독학할 수 있는건가요?

네, 독학할 수 있도록 모든 해석, 해설에 대한 코멘트를 상세히 달았습니다. ‘특히’ 평가원 해설은, 지난 수년 간 선티가 ‘와신상담’하면서 국내 최고의 평가원 해설지를 만들기 위해(목표는 항상 높게!) 공을 들였습니다. 모든 지문을, KISS Logic의 사고과정에 따라 상세하게 코멘트를 달았고, 모든 지문에 AB, PS 그리고 고 반응하기 위한 시그널(형광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⑦ 기출문제집과 EBS 연계 교재 사야 할까요?

기출문제집은 단연코 'NO', EBS는 선택이라는 답을 드립니다. 주간 KISS에는 최근 6개년, 17회의 평가원 기출의 핵심 문항이 모두 들어있을 겁니다(2021학년도 수능의 경우 파이널 KISS ESSENCE에 수록될 예정). 따라서 충분하디 충분하고(6개년부터 우선 제대로 합시다. 이거 제대로 하는데도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해요), 혹 KISS Logic Level 2까지 하신다면 거의 10개년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집은 추가적으로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EBS의 경우, 수특영어, 수특영독, 수능완성에서 중요 지문 각 42개가 수록됩니다. 이 지문에 대한 변형, 분석, 간접연계 문항이 모두 있는 것이죠. 따라서 N수생의 경우에는 EBS 연계 교재도 사실 필요가 없고, 고3인데 내신을 주력으로 준비해야 하는 친구의 경우만 EBS 연계 교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 ⑧ 몇 등급 이상 추천하시나요?

아무래도 지문 자체가 평가원 기출, 그리고 EBS 지문이기 때문에 이런 고3 지문들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력, 해석력'은 있어야 합니다. 3, 4등급이라면 어렵겠지만 진행 가능하고, 그 이하라면 먼저 수능단어와 구문 학습을 하시고 진행하기를 추천합니다.

### ⑨ 내신 대비도 되나요?

'안벽히'는 어렵고, '주요 지문'에 한해서 됩니다. 주간 KISS에 수록될 EBS 변형들은 여전히 평가원의 관점에서 '어렵고 좋은' 지문들일 것이고, 이 지문들은 내신에서도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하는 내신 대비 교재에 더하여, 내신에 나올 수 있는 EBS 킬러 변형을 풀고 또 분석 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까지, 내신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 ⑩ 주간 KISS 커리만 타면 1등급이 가능한가요?

소위 '가능' 질문인데,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 대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주간 KISS 풀커리를 타면, '6개년 거의 모든 평가원 문항', '올해 연계교재 3권 핵심 변형 문항', '20회의 교육청 하프모의고사', '추가 KISS N제와 사관학교 문항'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항들을 풀면 '문제의 양'은 충분히 넘치면 넘치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6개년 모든 지문의 '어휘, 해석'을 내가 챙기며 꾸준히 달렸다 생각해보세요. 영어 1등급을 위한 어휘력, 해석력을 키우는 데 부족할 수 없습니다. 평가원 지문들의 모든 단어, 해석, 논리를 다 씹어드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수록된 많은 문항들을 풀며 문풀 논리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현재 4등급이어도 꼭 따라오시면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확신합니다.

# 구성 — ◆

풀커리: 상반기 + 하반기

## ◇ 상반기: 14주

- 매주 교육청 하프모의고사 수록
- EBS는 하루 1지문 7일 구성으로, 각 연계교재 42지문(7x6) 선별
- Week 1 ~ Week 2(2월 중순 ~ 2월 말) 하루 구성: 쉬운 난이도 평가원 2문제 + KISS N제 2문제 + 어법 1문제
- Week 3 ~ Week 8(3월 ~ 4월 중순) 하루 구성: 쉬운 난이도 평가원 2문제 + 수특영어 핵심 킬러 변형 1문제 + 어법 변형 1문제 + 간접연계(사실상 비연계) 1문제
- Week 9 ~ Week 14(4월 말 ~ 6월 초) 하루 구성: 중간 난이도 평가원 2문제 + 수특영독 핵심 킬러 변형 1문제 + 어법 변형 1문제 + 간접연계(사실상 비연계) 1문제



## ◇ 하반기: 6주 + 모의고사 3회

- 매주 교육청 하프모의고사 수록
- EBS는 하루 1지문 7일 구성으로, 각 연계교재 42지문(7x6) 선별
- Week 18 ~ Week 20 배송 시 Masterpiece 영어 모의고사 3회분(듣기 포함) 배송
- Week 15 ~ Week 17(7월 중순 ~ 8월 초) 하루 구성: 사관학교 기출 2문제 + 수능완성 핵심 킬러 변형 1문제 + 어법 변형 1문제 + 간접연계(사실상 비연계) 1문제
- Week 18 ~ Week 20(8월 중순 ~ 9월 초) 하루 구성: 높은 난이도 평가원 2문제 + 수능완성 핵심 킬러 변형 1문제 + 어법 변형 1문제 + 간접연계(사실상 비연계) 1문제

# 배송 — ◆

- Week 1 ~ Week 2: 2월 말 배송 시작
- Week 3 ~ Week 5: 3월 중순 배송 시작
- Week 6 ~ Week 8: 4월 초 배송 시작
- Week 9 ~ Week 11: 4월 말 배송 시작
- Week 12 ~ Week 14: 5월 중순 배송 시작

· 6월 재정비 기간(6평 철저히 복기, 밀린 주간 KISS 해결 추천!)

- Week 15 ~ Week 17: 7월 중순 배송 시작
- Week 18 ~ Week 20 + Masterpiece 3회분: 8월 초 배송 시작

---

## ◆ 배송, 결제, 환불, 주소 변경 및 기타 Q&A

- 070-4353-3537 / orbi.cs@move.is (오르비 구매자)
- 02-5252-110 / help@mimacstudy.com (대성 구매자)

# 학습 Guide — ◆

## ◇ Focus of 기출

어휘, 해석, 문풀 논리를 모두 챙긴다.

## ◇ Focus of 기타 문항

문제 양치기. 어휘 및 문풀 논리를 챙긴다.

## ◇ 당연히 기타 지문도 해석 하나

하나 다 해보면 제일 좋지요.

허나 절평영어이니.. '선을' 정해주는 것.

## ◆ KISS Guide Book을 꼭 읽고

(특히 독해파트) 학습하기.

① 각 Day에 있는 문제들을 푼다.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나 이해가 안 가는 지문이 있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르는 어휘나 해석을 체크한다.

② 선티 해설을 본다(대성 강의가 있다면 강의도). 해설은 항상 '평가원' 위주이다. SheanT's comment를 통해 지문의 전반적 핵심 및 문제 풀이를 이해하고, 지문이 어떠한 논리로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파악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③ 평가원 문제가 이 해설이 훨씬 자세하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평가원 문제의 퀄리티를 따라갈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답이 나오는 '사고과정'은, 하나하나 선티의 사고 흐름을 익히도록 한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나만의 단어장'에 따로 적어 자투리 시간에 외우자. 평가원 자가 학습 페이지로 가서, 스스로 다시 로직을 복기하고, 어휘 테스트를 보고,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이 있으면 정리한다.

④ 기타 EBS 킬러 변형, 어법 변형, 간접연계 문항의 경우, 어휘와 문풀 논리 위주로 챙기고 넘어간다. 평가원은 어휘, 해석, 논리 모든 것을 씹어 먹겠다는 마음가짐, 그 외 문항은 문제를 풀고 문풀 논리와 단어를 챙긴다, 정도의 마음가짐이 좋다. 물론 '내신'을 챙기는 친구들은, EBS 지문의 경우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해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⑤ EBS가 들어가는 주의 어법 변형의 경우, 킬러 변형을 한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킬러 변형을 푼 뒤 해설을 보지 말고 바로 어법 변형을 푸는 것을 추천한다. 해당 지문에 대한 '어법 포인트'를 사실상 어법 문제로 설명한 거라 생각하면 되겠다. 내신에도 수능에도 도움이 될 것 :)

⑥ 교육청 하프모의고사는 일주일 중 좀 더 시간이 날 때(주말 추천), 시간 30분을 재고 풀고, 채점하고, 역시 단어와 지문 논리를 꼭 챙기면서 피드백하면 좋다. 매주 실전 연습하는 용도. 아직 매주 평가원 및 EBS 학습하기도 벅찬 경우, 모아놨다가 실력을 올리고 나중에 양치기 하는 것도 좋다.

##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각 Day를 진행하는 데 있어, 누군가는 1시간도 안 걸릴 것이고, 누군가는 2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다. 대략 1등급이면 40분 내외, 2, 3등급이면 1시간 내외, 4등급 이하면 더 걸려야 '정상'이다. 당연한 것이다. 1등급 친구는 내가 막히는 어휘나 해석이 별로 없으니 몇 개만 체크하고 픽업하고 넘어가는 것이고, 등급이 낮을 수록 단어 해석 하나하나가 퍽퍽 막힌다. 이것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며 공부하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확인하자면, 등급이 낮을 수록 이 시간을 꼭 투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절대 2, 3등급 위로 꺾충 오르지 않을 것이다. 믿고 2, 3개월만 꾸준히 해보자. 영어 지문을 보는 질이 달라질 것이다. 영어는 우직함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르친다.



### ◇ 학습 Q&A

- 오르비 KISS 페이지 질의응답 (오르비 구매자)
- 대성 선티 페이지 질의응답 (대성 구매자)



# 심플한 KISS Logic 설명 — ◆

## ◆ AB는

정말 간단히 말하면, 수능영어 지문의 핵심 구조는 not only A but also B라는 겁니다. B는 필자가 강조,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요. 필자가 ‘복습’을 강조하고 싶어서 글을 썼다, 그럼 복습이 B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지문에서 ‘복습이 중요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예습도 중요한데, 복습이 ‘더’ 중요해’라고 비교대조하며 표현해주고, 우리의 목적은 저 AB라는 key message를 찾는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버리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많은 경우에는 'A가 문제(P)가 있으니, B가 좋아(해결책이야 S)'라는 것이지만, 한 30% 정도는 S가 없이 대상의 P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강조하는 게 P이므로, P가 B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 ◆ AB/PS는

결국 ‘단어력’ 그리고 해석력이 따라주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3등급 이하는 AB/PS에 너무 목매기 보다(활용은 하려고 하되) 우직하게 단어 외우고, 외운 단어로 지문을 ‘한국말로 요리조리’ 해석하며 ‘아 해석이 되는구나’ 재미를 좀 더 느껴보세요. 그 과정에서 AB/PS가 느껴지면 좋고, 아니더라도 절대 문제 없습니다.

## ◆ AB/PS라는

어떤 ‘알파벳’에, 그 ‘기호’에 함몰되지 마세요. 이는 ‘본질’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본질은 아 필자가 자신이 강조하는 것(B)을 드러내기 위해 대립항(A)을 세워서 많이 강조하는구나. 그 속에 문제 의식도 섞여 있겠네, 이런 관점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지, 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CE(원인,결과) ME(수단,목적)라는 기호도 쓰고는 했는데, 역시 수능에서의 도구는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들만 기억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둘로 나뉘지나?’ ‘이거 문제인가?’ 이 생각만 하며 지문을 읽으세요. 이 대상, 개념을 필자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 이를 까는 것이고, 이와 대립되는,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대상, 개념이 나오겠네!  
Could it be simpler?

# 해설 기호 설명 —◆

## ◆ Shean.T's Comment

해당 문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취하면 좋았을 방향, 태도.

## ◆ **형광펜**

AB, PS를 알 수 있기에 반응해야 할 Signal

## ◆ **진한 단어**

어휘 정리

## ◆ **선지**

- ① A(not A): A쪽(A의 반대 쪽) 선지.
- ② B(not B): B쪽(B의 반대 쪽) 선지.
- ③ off: 지문의 AB, PS로 grouping되지 않는 헛소리.
- ④ 반: 해당 선지의 '반대 의미'가 정답.
- ⑤ 매: 매력적인 오답(off로 인한).



**Note**

# Table of Contents

## Week 5

◆ Day 1 ..... P. 16 - P. 27

◆ Day 2 ..... P. 30 - P. 41

◆ Day 3 ..... P. 44 - P. 55

◆ Day 4 ..... P. 58 - P. 69

◆ Day 5 ..... P. 72 - P. 83

◆ Day 6 ..... P. 86 - P.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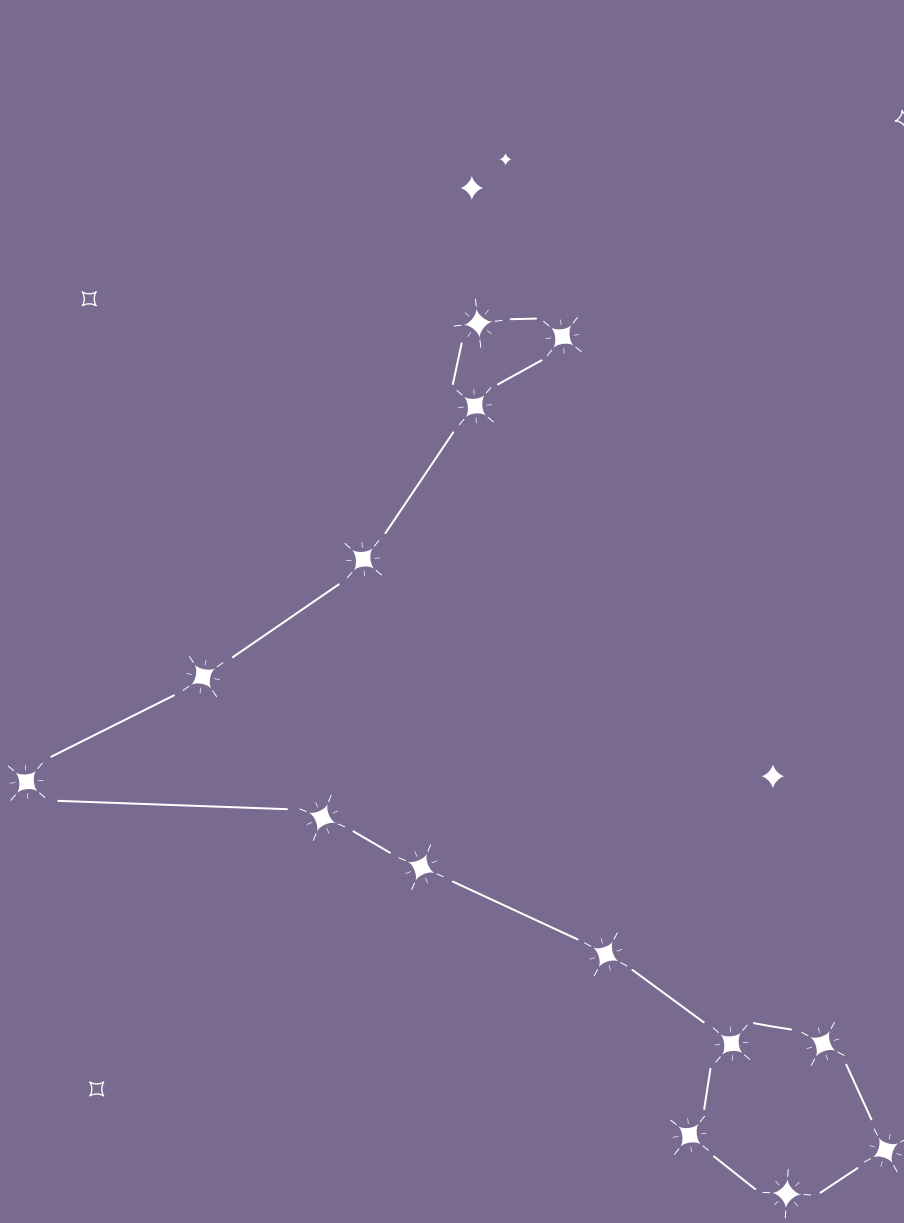
◆ Day 7 ..... P. 100 - P. 111

◆ 교육청 ..... P. 116 - P. 138

수능영어의 노력이라는 가치를 믿기에, 이를 가르칩니다.  
꼭 1등급이 나와 수시, 정시에서 큰 우위를 가지길 바라며,

*Shear.T*

**Weekly**  
**KISS**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Day 1**  
◆ **Week 5** ◆



출처 2018.6.21

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Parents are quick to inform friends and relatives as soon as their infant holds her head up, reaches for objects, sits by herself, and walks alone. Parental enthusiasm for these motor accomplishments is not at all misplaced, for they are, indeed, milestones of development. With each additional skill, babies gain control over their bodies and the environment in a new way. Infants who are able to sit alone are granted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world than are those who spend much of their day on their backs or stomachs. Coordinated reaching opens up a whole new avenue for exploration of objects, and when babies can move about, their opportunities for independent exploration and manipulation are multiplied. No longer are they restricted to their immediate locale and to objects that others place before them. As new ways of controlling the environment are achieved, motor development provides the infant with a growing sense of competence and mastery, and it contributes in important ways to the infant's perceptual and cognitive understanding of the world.

\* locale: 현장, 장소

- ①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은 유아의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
- ②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은 유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 ③ 부모의 관심은 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에 필수적이다.
- ④ 주변 환경의 변화는 유아기 운동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
- ⑤ 유아는 시행착오를 통해 공간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NOTE

출처 2018.6.22

2.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a strategic and tactical mistake to give an offensive position away to those who will use it to attack, criticize, and blame. Since opponents will undoubtedly attack, criticize, and blame, anyway, the advantages of being proactive, airing one's own "dirty laundry," and "telling on oneself" are too significant to ignore. Chief among these advantages is the ability to control the first messages and how a story is first framed. That leaves others having to respond to you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 This approach is appropriately termed "stealing thunder." When an organization steals thunder, it breaks the news about its own crisis before the crisis is discovered by the media or other interested parties. In experimental research by Arpan and Roskos-Ewoldsen, stealing thunder in a crisis situation, as opposed to allowing the information to be first disclosed by another party, resulted in substantially higher credibility ratings. As significant, the authors found that "credibility ratings associated with stealing thunder directly predicted perceptions of the crisis as less severe."

\* dirty laundry: 치부, 수치스러운 일

- ① necessity of being cooperative in a crisis situation
- ② importance of taking the initiative in managing a crisis
- ③ problem of creating false stories to save an organization
- ④ significance of remaining silent in strengthening credibility
- ⑤ advantage of improving the corporate image through media

NOTE



출처 수특영어.14강.6번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Harvard’s Nicholas Christakis says that when you take a bird’s eye view of humans through the prism of social networks, the picture of both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changes. He draws the ① analogy with graphite and diamonds. Both materials are made of carbon atoms but it is the way these individual atoms are ② connected that determines why one material is soft and dark and the other is hard and clear. The layered lattice arrangement of graphite carbon atoms means that it shears easily, whereas the highly interconnected arrangement of diamond carbon atoms means that it is as ③ hard as — well, diamonds, of course. Therefore, when it comes to carbon atoms, the whole is ④ weaker than the sum of its parts. Similarly, understanding the individual self only really makes sense in terms of the groups to which they are connected. To extend the carbon metaphor, when we are well connected, we are more ⑤ resilient because there is safety and strength in numbers. Alone, we are more vulnerable and weaker.

\* graphite: 흑연 \*\* lattice: 격자, 격자 모양의 것

\*\*\* shear: 부러지다

NOTE

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y scientists look on chemistry and physics as ideal models of what psychology should be like.

- (A) The answer is no, simply because even if we understood how each of our billions of brain cells work separately, this would not tell us how the brain works as an agency. The “laws of thought” depend not only upon the properties of those brain cells but also on how they are connected.
- (B) And these connections are established not by the basic, “general” laws of physics, but by the particular arrangements of the millions of bits of information in our inherited genes. To be sure, “general” laws apply to everything. But, for that very reason, they can rarely explain anything in particular.
- (C) After all, the atoms in the brain are subject to the same all-inclusive physical laws that govern every other form of matter. Then can we also explain what our brains actually do entirely in terms of those same basic principle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NOTE

출처 수특영어.14강.6번

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Harvard’s Nicholas Christakis says that when you take a bird’s eye view of humans through the prism of social networks, the picture of both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① changing. He draws the analogy with graphite and diamonds. Both materials are made of carbon atoms but it is the way these individual atoms are connected ② that determines why one material is soft and dark and the other is hard and clear. The layered lattice arrangement of graphite carbon atoms means that it shears ③ easily, whereas the highly interconnected arrangement of diamond carbon atoms means that it is as hard as — well, diamonds, of course. Therefore, when it comes to carbon atoms,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Similarly, ④ understanding the individual self only really makes sense in terms of the groups to which they are connected. ⑤ To extend the carbon metaphor, when we are well connected, we are more resilient because there is safety and strength in numbers. Alone, we are more vulnerable and weaker.

\* graphite: 흑연 \*\* lattice: 격자, 격자 모양의 것  
\*\*\* shear: 부러지다

NOTE



**Note**

◆ Shean.T's Comment ◆

정답: ①번.

AB 대립성이 뚜렷하지는 않고(분명 있기는 있다), B의 장점을 꼭 서술한 지문. 즉 B가 아기의 운동 능력(대표적으로 앉기)이 여러 다른 장점들로 이어진다는 핵심만 크게크게 잡고 답과 연결시키면 되겠다.

- A: 운동 능력이 없는 아이(누워 있는 아이), 범위가 제한적
- < B: 운동 능력이 있는 아이(앉아 있는 아이), 여러 능력 발달

◆ Vocabulary ◆

1. relative	9. avenue	1. 친척	9. 길, 수단
2. enthusiasm	10. manipulation	2. 열성, 열의	10. 조작
3. motor	11. multiply	3. 운동(능력)의	11. 크게 증가시키다
4. misplaced	12. competence	4. 잘못된	12. 능력
5. milestone	13. mastery	5. 중요한 단계	13. 숙달
6. grant	14. contribute to N	6. 부여하다, 주다	14. ~에 기여하다
7. perspective	15. perceptual	7. 관점, 시각	15. 지각의
8. coordinated	16. cognitive	8. 조정된	16. 인지의

◆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8.6.21

Parents are quick to inform friends and **relatives** as soon as their infant holds her head up, reaches for objects, sits by herself, and walks alone.

부모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재빨리 알린다 / 자신들의 유아가 머리를 떠받치고, 물건을 집으려 손을 뻗고, 스스로 앉고, 혼자서 걷자마자.

**선택** 첫 문장. 중요한가? 노노. AB 대립성도 없고 P도 없다. 그냥 부모님들이 자식 자랑 하는구나~ 하면 되겠다.

Parental **enthusiasm** for these **motor** accomplishments is **not** at all **misplaced**, for they are, indeed, **milestones** of development. With each additional skill, babies gain control over their bodies and the environment in a new way.

이러한 운동기능의 성취에 대한 부모의 열성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 그것들이 실제로 발달의 중요한 단계들이기 때문이다. / 각각의 추가적인 기술로, / 아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신체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다.

**선택** 'not'이 있으므로 한 번 반응할 수 있겠으나, '잘못된(misplaced)' 것이 아니다.. 라는 not P의 느낌은, AB의 대립성이 느껴지는 개념도 아니고 P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야 한다. 그저 아이들의 운동(움직이는) 능력이 중요하구나~ 느끼면서 읽는다.

Infants who are able to sit alone(B) are **granted**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world **than** are those who spend much of their day on their backs or stomachs(A).

혼자서 앉을 수 있는 유아는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시각을 부여받게 된다 / 하루의 많은 부분을 눕거나 엎드려 보내는 유아들보다.

**선택** 뽀! 이 문장은 중요하다고 반응한다. 왜? than이 있으니까.. 우리 유아의 두 종류를 AB로 잡아주자. 읽어보니 아직 누워서 지내는 아기들이 A,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이 B가 되겠다. 이 지문은 명확하게, '혼자 앉는 것'의 장점을 서술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Coordinated reaching**(B) opens up a whole new **avenue** for exploration of objects, and when babies can move about, **their opportunities** for independent exploration and **manipulation**(B) are **multiplied**.

조정된 (팔) 뻗기는 사물의 탐구에 대한 온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 주며, / 아기들이 돌아다닐 수 있을 때, / 독립적인 탐구와 조작을 위한 기회는 크게 증가된다.

**선택** 이 부분을 빠르게 해석하고 계시면 안 된다. Coordinated, opportunities의 단어들을 통해 아 혼자서 앉는 능력의 장점들이구나~ 하고 넘어가야 한다.

**No longer** are they restricted to their immediate locale(A) and to objects that others place before them(A).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제한되어 있지 않다 / 자신들에게 가까운 장소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앞에 놓아두는 물건들에만.

**선택** No longer!라는 not A의 논리가 나오니 살짝 반응해주자. 아 이리이러한 것에 제한되지 않는구나.

As new ways of controlling the environment are achieved, **motor development**(B) provides the infant with a growing sense of **competence** and **mastery**, and it **contributes** in **important** ways to the infant's **perceptual** and **cognitive** understanding of the world.

\* locale: 현장, 장소  
환경을 조절하는 새로운 방식이 성취되면서, / 운동능력의 발달은 유아에게 능력과 숙달에 대한 증가하는 인식을 제공하고, / 그것은 중요한 방식으로 기여한다 / 세상에 대한 유아의 지각 및 인지적 이해에.

**선택** 마지막에도 운동 발달(motor development)이 중요하다는 얘기구나~ B 체크하면서 마무리한다. 이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의 장점(다른 발달에 기여)을 서술한 1번 선지로 간다.

- ①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B)**은 유아의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
- ②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off)**은 유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 ③ **부모의 관심(off)**은 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에 필수적이다.
- ④ **주변 환경의 변화(off)**는 유아기 운동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
- ⑤ 유아는 **시행착오를 통해 공간 지각 능력(off)**을 발달시킨다.

◆ Shean.T's Comment ◆

정답: ②번.

대외파악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축에 속한다. 정답률 60%대면 '중상' 난이도라는 얘기. 내용도 추상적이고 단어, 표현도 난이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른 PS 단어들만 잡아서 핵심만 이해해서,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야 한다.

P: 상대방이 나의 위기를 먼저 말하는 것 < S: 내가 내 위기를 먼저 말해 선수 치는 것

◆ Vocabulary ◆

- |                |                           |               |                  |
|----------------|---------------------------|---------------|------------------|
| 1. strategic   | 9. frame(v)               | 1. 전략의        | 9. 틀을 잡다         |
| 2. tactical    | 10. the other way around  | 2. 전술의        | 10. 정반대로         |
| 3. offensive   | 11. term A B              | 3. 공격의        | 11. A를 B라고 부르다   |
| 4. opponent    | 12. steal (one's) thunder | 4. 상대방, 적     | 12. (~에게) 선수를 치다 |
| 5. proactive   | 13. as opposed to N       | 5. 능동적인, 적극적인 | 13. ~와는 정반대로     |
| 6. air(v)      | 14. credibility           | 6. 방송을 내보내다   | 14. 신뢰성          |
| 7. tell on     | 15. severe                | 7. ~에게 고자질하다  | 15. 심각한          |
| 8. significant | 16.                       | 8. 중요한        | 16.              |

◆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8.6.22(66%)

It is a **strategic** and **tactical** **mistake** to give an **offensive** position away to those who will use it to attack, criticize, and blame(P).

전략적, 전술적 실수이다 /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해 공격의 위치를 이용할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은.

**선택** mistake를 P의 시그널로 반응. 공격 위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건 P! attack, criticize, blame이란 단어들 자체만으로도 P가 팍팍 느껴진다. P가 이어지는가, S가 나오는가 예의주시.

Since **opponents** will undoubtedly attack, criticize, and blame, anyway, **the advantages** of being **proactive**, **airing one's own "dirty laundry,"** and **"telling on oneself"(S)** are too **significant** to ignore.

상대는 어쨌든 분명히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 적극적인 자세의 이점들은, / 자기 자신의 '치부'를 발표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고자질'하는 / 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다.

**선택** 어렵다. 단어, 표현도 쉽지 않고, '내용 자체'가 와닿는 느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그널들을 통해 기본적인 로직 알파벳은 잡을 수 있어야 한다. proactive(적극적인) 자세가, 'advantage'가 있고, 너어어무 '중요(significant)'하다. 따라서 proactive, 그리고 이것의 부연 격인 airing과 telling 부분들은 아직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더라도 모두 P의 반대, 즉 S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겠다.

**Chief** among these **advantages** is the ability to control the first messages and how a story is first **framed(S)**. That leaves others having to respond to you(S)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P)**.

이러한 장점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최초의 메시지와 이야기가 처음 틀이 잡히는 방식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응을 해야만 하게 만든다 / 반대로 하는 대신에.

**선택** Chief, advantages등을 통해 S가 이어짐을 빠르게 '확인' 정도만 하고, 다음 문장의 instead of에 더 크게 반응하며(not A but B를 명확히 해주니까) 이 앞뒤를 PS로 잡는다. S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반응하게 만드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반대가 아니라.

This approach(S) is appropriately **termed "stealing thunder(S)."** When an organization **steals thunder(S)**, it **breaks** the news about its own crisis(S) before the crisis is discovered by the media or other interested parties.

이런 접근 방식은 '선수 치기'로 적절하게 일컬어진다. / 어떤 조직체가 선수를 칠 때, / 조직은 자신의 위기에 대한 소식을 터뜨린다 / 위기가 매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발견되기 전에.

**선택** 드디어 뭔가 애매애매하게 말했던, S를 딱 정리해준다. 아이 위기(P)에서 벗어나는 해결법을 '선수 치기(S)'라고 부르는데. 계속 PS 범주화.

In experimental research by Arpan and Roskos-Ewoldsen, **stealing thunder(S)** in a **crisis(P)** situation, **as opposed to allowing the information to be first disclosed by another party(P)**, resulted in **substantially higher credibility ratings(S)**.

A와 R-E에 의한 실험적인 연구에서 / 위기 상황에서 선수를 치는 것은, / 정보가 먼저 다른 당사자에 의해 폭로되도록 허용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 대체로 더 높은 신뢰성 평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선택** as opposed to(-에 '반대'되어)라는 표현이 나오므로 가볍게 또 앞뒤를 PS로 잡아준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선수치기가 신뢰도에 좋다는 거군.'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위기 상황에서 선수를 치는 것은 상당히 더 높은 신뢰도 평가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냥 또 뭘 소리지 하는 것이다. 전자 정도라면 이해해도, 수능영어 문제 푸는 데는 아주아주 충분하기에.

As significant, the authors found that **"credibility ratings associated with stealing thunder(S) directly predicted perceptions of the crisis(P) as less severe."**

\* dirty laundry: 치부, 수치스러운 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 그 저자들이 발견했다는 것이다 / '선수치기와 관련된 신뢰성 평가는 / 곧장 위기에 대한 인식을 덜 심각한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을.

**선택** 바로 앞 문장과 마찬가지로. 역점이 없으니, 여전히 '선수 치기(S)'가 '좋다는 거구나'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걸 단어 하나하나 '해석'처럼 이해하는 순간 수능 영어의 평가요소를 잘 모르는 것. 해석 시험이 아니라, '논지 이해' 시험이다.

**선택** 기본적으로 이 지문을 읽고, '적극적으로 선수 치는 게 좋구나' 정도가 머릿속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만 머릿속에 남아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다. 그대로 2번으로 가면 되겠다. 'take the initiative'가 '주도권을 잡다'라는 표현임을 아느냐,가 관련이겠다. 결국엔 단어, 표현량이다 제발.

- ① **necessity of being cooperative(off) in a crisis situation**  
위기 상황에서 협동을 하는 것의 필요성
- ② **importance of taking the initiative(S) in managing a crisis(P)**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선수를 치는 것의 중요성
- ③ **problem(P) of creating false stories to save an organization(off)**  
조직을 구하기 위해 거짓이야기를 만드는 것의 문제점
- ④ **significance of remaining silent(off) in strengthening credibility**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 ⑤ **advantage of improving the corporate image through media(off)**  
매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의 장점

◆ Summary ◆

어휘 정답: ④번. | 어법 정답: ①번.

- 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인간을 보면 개인과 집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띤다.
- ② 유추 - A: 개별 흑연, 더 취약함 < B: 흑연이 연결된 다이아몬드, 더 강력함
- ③ Similarly, 혼자(A)일 때보다 연결된 집단(B)일 때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음!

◆ Vocabulary ◆

- |                     |                        |             |             |
|---------------------|------------------------|-------------|-------------|
| 1. bird's eye view  | 9. arrangement         | 1. 조감, 개관   | 9. 준비, 배열   |
| 2. individual       | 10. when it comes to N | 2. 개인(의)    | 10. ~에 관한 한 |
| 3. draw analogy     | 11. make sense         | 3. 비유를 끌어내다 | 11. 말이 되다   |
| 4. material         | 12. in terms of        | 4. 재료, 물질   | 12. ~에 관하여  |
| 5. carbon atom      | 13. extend             | 5. 탄소 원자    | 13. 확장하다    |
| 6. (inter)connected | 14. metaphor           | 6. (상호)연결된  | 14. 비유, 은유  |
| 7. determine        | 15. resilient          | 7. 결정하다     | 15. 회복력이 있는 |
| 8. layered          | 16. vulnerable         | 8. 층이 있는    | 16. 취약한     |

◆ Shean.T's Grammar ◆

- ① 동사 vs. 준동사. that 절에서 when 부사절을 지우고 나면, 콤마 뒤 주절에서 동사가 없다. changing을 changes로 바꿔 동사 역할을 해야 한다!
- ② it that 강조구문. The way these individual atoms are connected determines why... 이런 문장에서 주어인 The way ~ connected를 강조하기 위해 it과 that 사이에 위치시킨 강조구문.

- ③ 부사의 동사 수식. '쉽게 부러진다'라는 해석을 통해, easily가 shears를 수식하는 것 확인.
- ④ 동사 vs. 준동사. understand라는 동사나, understanding이라는 준동사나를 물어본 것. 뒤에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makes sense라는 동사가 있으므로 준동사 형태인 understanding.
- ⑤ To V의 부사적 용법. '~하자면' 정도의 부사로 쓰인 To V. 문제 없다.

◆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수록영어.14강.6번

①

Harvard's Nicholas Christakis says that when you take a **bird's eye view** of humans through the prism of social networks, the picture of both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changes.

Harvard 대학의 Nicholas Christakis는 말한다 / 소셜 네트워크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간을 조감하면, / 개인과 집단 모두 그 상이 바뀐다고.

**선택** 소셜네트워크라는 키워드 정도 잡고, individual과 group을 통해 개인 vs. 집단의 AB인가?까지 생각하시면 좋다.

②

He **draws** the ① **analogy** with graphite and diamonds. Both **materials** are made of **carbon atoms** but it is the way these individual atoms are ② **connected(B)** that **determines** why one material is soft and dark and the other is hard and clear. **The layered lattice arrangement** of graphite carbon atoms(A) means that it shears easily, **whereas** the highly **interconnected arrangement** of diamond carbon atoms(B) means that it is as ③ **hard** as — well, diamonds, of course. Therefore, **when it comes to carbon atoms, the whole(B)** is ④ **greater(← weaker) than the sum of its parts(A)**.

그는 흑연과 다이아몬드에서 유사점을 끌어낸다. / 두 물질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 바로 이 개별 원자들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 왜 한 물질은 부드럽고 검으며 다른 한 물질은 단단하고 투명하지를 결정하는 것은. / 흑연 탄소 원자의 층을 이룬 격자 배열은 의미한다 / 그것이 쉽게 부러진다는 것을, / 반면에 다이아몬드 탄소 원자의 고도로 상호 연결된 배열은 의미한다 / 그것이 물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다는 것을. / 그러므로, 탄소 원자의 경우 전체는, 그것의 부분의 합보다 더 강하다.

**선택**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관계로 표현하려고 하니 1번 유추(analogy) 맞다. 2번 문장에서 connected를 명확히 B로 잡아준다. 왜? connected 되어 있는 방식이 물질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2번의 근거는 whereas 문장에서 명확하다. 그냥 흑연을 쌓아 올린 개별적 형태는 A, 이것들이 상호 연결된(interconnected) 다이아몬드 형태는 B이다. B 형태이고, 상식적으로 다이아몬드이므로... 당연히 단단하겠다(hard).

**선택** 4번 문장 또한 AB 표현이 than 앞뒤로 아주 예쁘다. 전체(whole)는 B로 잡아주고, 그냥 부분을 합친 것(sum)은 A로 잡아준다. 당연히 B는 A보다... 더 단단하고 더 강해야 한다. 더 약하면(weaker) 안 되고. 4번을 greater로 수정하자.

③

Similarly, understanding the individual self(A) only really **makes sense in terms of** the groups to which they are **connected(B)**. To **extend** the carbon **metaphor**, when we are well **connected(B)**, we are **more** ⑤ **resilient(B)** because there is safety and strength in numbers. **Alone(A)**, we are more **vulnerable and weaker**.

\* graphite: 흑연 \*\* lattice: 격자, 격자 모양의 것 \*\*\* shear: 부러지다  
마찬가지로, 개별 자아를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있을 뿐이다 / 그것이 연결된 집단의 관점에서. / 탄소의 비유를 확장하자면, / 우리는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더 회복력이 있다, / 다수일 때 안전(함)과 힘이 있기 때문에. / 혼자 있으면, 우리는 더 공격받기 쉽고 더 약하다.

**선택** 마지막 단락도 가볍게 AB를 잡아주며 내려온다. 5번 resilient의 경우 사실 각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친구인데, 각주로 안 나왔을 경우 중요하므로 챙겨두자. '회복력이 있는'이라는 뜻이고, 로직 B이니 당연히 A보다 회복력이 있겠다.

◆ Shean.T's Comment ◆

정답: ④번.

\* 소재: EBS 원문은 물질도 인간 사회도 개별적으로 있을 때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강력하다는 내용이다. 이 간접연계 지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물리학 법칙이 개별적인 작동 원리는 설명할 수 있으나, 이것들이 연결된 '전체'의 작동 방식은 설명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별 vs. 전체'의 AB 논리를 따른다.

주어진 글: 화학과 물리학이 심리학의 '이상적인(ideal)' 모델이라고 하니, 이 둘을 가볍게 B로 잡을 수 있겠다.

(B) or (C): (B)단락 첫 문장 'these connections'가 먼저 눈에 띄어야 한다. 앞에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데, 주어진 글은 전혀 그렇지 않다. (C)단락으로 가면, 물리학 법칙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govern)는 내용이니, 물리학이 로직 B임을 부여하는 문장으로 들어맞는다.

(A) or (B): 문풍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these connections를 기준으로 삼아 빨리 답을 내야 한다.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이 (C)의 마지막과 (A)의 마지막 중 어디에 있는지 체크한다. (A)의 마지막에 있으므로 (A)가 먼저 나오고 (B)가 나와야 하겠다. 더불어, (C)단락 마지막에서 물어보고 (A)에서 답하기도 완벽한 근거. 사후적으로는, 물리학이 결국엔 로직 B가 아니라 A가 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도 파악하자.

◆ Vocabulary ◆

1. look (up)on A as B	9. separately	1. A를 B로 간주하다	9. 별개로
2. psychology	10. agency	2. 심리학	10. 기관, 주체
3. be subject to N	11. property	3. ~의 대상이다	11. 재산, 속성
4. all-inclusive	12. establish	4. 포괄적인	12. 확립하다
5. physical law	13. particular	5. 물리 법칙	13. 특정한
6. govern	14. arrangement	6. ~을 지배하다	14. 준비, 배열
7. entirely	15. inherit	7. 전체적으로	15. 물려받다
8. principle	16. rarely	8. 원리, 원칙	16. 거의 ~ 않다

◆ KISS Logic & Interpretation ◆

4.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any scientists **look on** chemistry and physics(B) as ideal models of what **psychology should** be like.

(C) After all, the atoms in the brain **are subject to** the same **all-inclusive physical laws**(B) that **govern** every other form of matter. **Then can we also explain** what our brains actually do **entirely** in terms of those same basic **principles**?

(A) **The answer is no,** simply because even if we understood how each of our billions of brain cells work **separately**(A), **this**(A) would **not** tell us how the brain works as an **agency**(B). The "laws of thought" depend **not only** upon the **properties** of those brain cells(A) **but also** on how they are connected(B).

(B) And **these connections** are **established not** by the basic, "general" laws of physics(A), **but by the particular arrangements** of the millions of bits of information(B) in our **inherited** genes. To be sure, "general" laws(A) apply to everything. **But,** for that very reason, they can **rarely** explain anything in particular(B).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많은 과학자들은 화학과 물리학을 이상적인 모델로 여긴다 / 심리학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C) 어쨌든, 뇌 속에 있는 원자들은 포괄적인 동일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모든 다른 형태의 물질을 지배하는. /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뇌가 실제로 하는 일을 설명할 수도 있는가 / 동일한 기본적인 법칙의 관점에서?

(A) 대답은 '아니오'이다, /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각각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 단지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 우리의 뇌가 하나의 작용 주체로서 작용하는 방식을. / '생각의 법칙'은 의존한다 / 그러한 뇌세포의 속성 뿐만 아니라 / 뇌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도.

(B)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확립된다 / 기본적인 '일반적' 물리 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 속에 있는 수백만 개의 정보의 특정한 배열에 의해서. / 물론, '일반적' 법칙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 / 하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로, / 일반적 법칙들은 특정한 어떤 것도 거의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21

Parents are quick to inform friends and **relatives** as soon as their infant holds her head up, reaches for objects, sits by herself, and walks alone. Parental **enthusiasm** for these **motor** accomplishments is not at all **misplaced**, for they are, indeed, **milestones** of development. With each additional skill, babies gain control over their bodies and the environment in a new way. Infants who are able to sit alone are **granted**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world than are those who spend much of their day on their backs or stomachs. **Coordinated** reaching opens up a whole new **avenue** for exploration of objects, and when babies can move about, their opportunities for independent exploration and **manipulation** are **multiplied**. No longer are they restricted to their immediate locale and to objects that others place before them. As new ways of controlling the environment are achieved, motor development provides the infant with a growing sense of **competence** and **mastery**, and it **contributes** in important ways **to** the infant's **perceptual** and **cognitive** understanding of the world.

\* locale: 현장, 장소

- ①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은 유아의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
- ②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은 유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 ③ 부모의 관심은 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에 필수적이다.
- ④ 주변 환경의 변화는 유아기 운동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
- ⑤ 유아는 시행착오를 통해 공간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영어) ◆

◆ Vocabulary Test ◆

- |                     |     |
|---------------------|-----|
| 1. relative         | 1.  |
| 2. enthusiasm       | 2.  |
| 3. motor            | 3.  |
| 4. misplaced        | 4.  |
| 5. milestone        | 5.  |
| 6. grant            | 6.  |
| 7. perspective      | 7.  |
| 8. coordinated      | 8.  |
| 9. avenue           | 9.  |
| 10. manipulation    | 10. |
| 11. multiply        | 11. |
| 12. competence      | 12. |
| 13. mastery         | 13. |
| 14. contribute to N | 14. |
| 15. perceptual      | 15. |
| 16. cognitive       | 16. |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21

Parents are quick to inform friends and **relatives** as soon as their infant holds her head up, reaches for objects, sits by herself, and walks alone. Parental **enthusiasm** for these **motor** accomplishments is **not** at all **misplaced**, for they are, indeed, **milestones** of development. With each additional skill, babies gain control over their bodies and the environment in a new way. Infants who are able to sit alone(B) are **granted** an entirely different **perspective** on the world **than** are those who spend much of their day on their backs or stomachs(A). **Coordinated** reaching(B) opens up a whole new **avenue** for exploration of objects, and when babies can move about, their opportunities for independent exploration and manipulation(B) are **multiplied**. **No longer** are they restricted to their immediate locale(A) and to objects that others place before them(A). As new ways of controlling the environment are achieved, motor development(B) provides the infant with a growing sense of **competence** and **mastery**, and it **contributes** in **important** ways to the infant's **perceptual** and **cognitive** understanding of the world.

\* locale: 현장, 장소

- ① 유아의 운동 능력 발달(B)은 유아의 다른 발달에 기여한다.
- ②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off)은 유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 ③ 부모의 관심(off)은 유아의 균형 있는 신체 발달에 필수적이다.
- ④ 주변 환경의 변화(off)는 유아기 운동 능력 발달을 촉진한다.
- ⑤ 유아는 시행착오를 통해 공간 지각 능력(off)을 발달시킨다.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해석 및 표현) ◆

◆ Vocabulary Test ◆

1. relative	1. 친척
2. enthusiasm	2. 열성, 열의
3. motor	3. 운동(능력)의
4. misplaced	4. 잘못된
5. milestone	5. 중요한 단계
6. grant	6. 부여하다, 주다
7. perspective	7. 관점, 시각
8. coordinated	8. 조정된
9. avenue	9. 길, 수단
10. manipulation	10. 조작
11. multiply	11. 크게 증가시키다
12. competence	12. 능력
13. mastery	13. 숙달
14. contribute to N	14. ~에 기여하다
15. perceptual	15. 지각의
16. cognitive	16. 인지의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22(66%)

It is a **strategic** and **tactical** mistake to give an **offensive** position away to those who will use it to attack, criticize, and blame. Since **opponents** will undoubtedly attack, criticize, and blame, anyway, the advantages of being **proactive**, **airing** one's own "dirty laundry," and "**telling on** oneself" are too **significant** to ignore. Chief among these advantages is the ability to control the first messages and how a story is first **framed**. That leaves others having to respond to you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 This approach is appropriately **termed** "**stealing thunder**." When an organization steals thunder, it breaks the news about its own crisis before the crisis is discovered by the media or other interested parties. In experimental research by Arpan and Roskos-Ewoldsen, stealing thunder in a crisis situation, **as opposed to** allowing the information to be first disclosed by another party, resulted in substantially higher **credibility** ratings. As significant, the authors found that "credibility ratings associated with stealing thunder directly predicted perceptions of the crisis as less **severe**."

\* dirty laundry: 치부, 수치스러운 일

- ① necessity of being cooperative in a crisis situation
- ② importance of taking the initiative in managing a crisis
- ③ problem of creating false stories to save an organization
- ④ significance of remaining silent in strengthening credibility
- ⑤ advantage of improving the corporate image through media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영어) ◆

◆ Vocabulary Test ◆

- |                           |     |
|---------------------------|-----|
| 1. strategic              | 1.  |
| 2. tactical               | 2.  |
| 3. offensive              | 3.  |
| 4. opponent               | 4.  |
| 5. proactive              | 5.  |
| 6. air(v)                 | 6.  |
| 7. tell on                | 7.  |
| 8. significant            | 8.  |
| 9. frame(v)               | 9.  |
| 10. the other way around  | 10. |
| 11. term A B              | 11. |
| 12. steal (one's) thunder | 12. |
| 13. as opposed to N       | 13. |
| 14. credibility           | 14. |
| 15. severe                | 15. |
| 16.                       | 16. |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22(66%)

It is a **strategic** and **tactical** **mistake** to give an **offensive** position away to those who will use it to attack, criticize, and blame(P). Since **opponents** will undoubtedly attack, criticize, and blame, anyway, **the advantages** of **being proactive**, **airing** one's own "dirty laundry," and "**telling on oneself**"(S) are too **significant** to ignore. **Chief** among these **advantages** is **the ability** to control the first messages and how a story is first **framed**(S). That leaves others having to respond to you(S)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P). This approach(S) is appropriately **termed** "**stealing thunder**(S)." When an organization **steals** thunder(S), it **breaks** the news about its own crisis(S) before the crisis is discovered by the media or other interested parties. In experimental research by Arpan and Roskos-Ewoldsen, **stealing** thunder(S) in a **crisis**(P) situation, **as opposed to** allowing the information to be first disclosed by another party(P), resulted in **substantially higher credibility** ratings(S). As significant, the authors found that "credibility ratings associated with **stealing** thunder(S) directly predicted **perceptions** of the crisis(P) as less **severe**."

\* dirty laundry: 치부, 수치스러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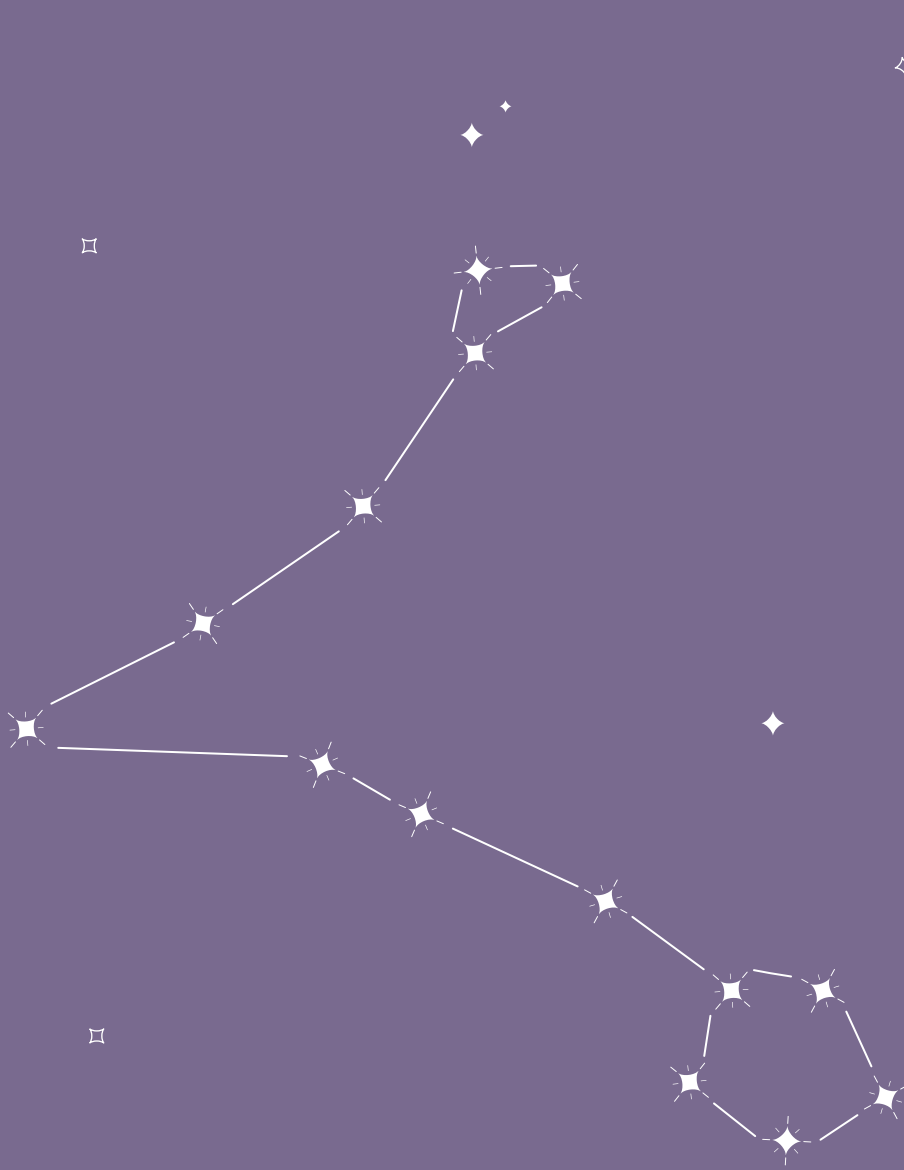
- ① necessity of being **cooperative**(off) in a crisis situation  
위기 상황에서 협동을 하는 것의 필요성
- ② importance of **taking the initiative**(S) in managing a **crisis**(P)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선수를 치는 것의 중요성
- ③ **problem**(P) of creating false stories to save an organization(off)  
조직을 구하기 위해 거짓이야기를 만드는 것의 문제점
- ④ significance of **remaining silent**(off) in strengthening credibility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침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 ⑤ advantage of improving the corporate image through **media**(off)  
매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의 장점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해석 및 표현) ◆

◆ Vocabulary Test ◆

- |                           |                  |
|---------------------------|------------------|
| 1. strategic              | 1. 전략의           |
| 2. tactical               | 2. 전술의           |
| 3. offensive              | 3. 공격의           |
| 4. opponent               | 4. 상대방, 적        |
| 5. proactive              | 5. 능동적인, 적극적인    |
| 6. air(v)                 | 6. 방송을 내보내다      |
| 7. tell on                | 7. ~에게 고자질하다     |
| 8. significant            | 8. 중요한           |
| 9. frame(v)               | 9. 틀을 잡다         |
| 10. the other way around  | 10. 정반대로         |
| 11. term A B              | 11. A를 B라고 부르다   |
| 12. steal (one's) thunder | 12. (~에게) 선수를 치다 |
| 13. as opposed to N       | 13. ~와는 정반대로     |
| 14. credibility           | 14. 신뢰성          |
| 15. severe                | 15. 심각한          |
| 16.                       | 16.              |

**Weekly**  
**KISS**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Day 2**  
◆ **Week 5** ◆



출처 2018.6.23

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you've ever seen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at a broker's desk, you have a sense of the information overload they are up against. When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a company, for example, they may take into account the people at the helm; the current and potential size of its market; net profits; and its past, present, and future stock value, among other pieces of information. Weighing all of these factors can take up so much of your working memory that it becomes overwhelmed. Think of having piles and piles of papers, sticky notes, and spreadsheets strewn about your desk, and you get a picture of what's going on inside the brain. When information overloads working memory this way, it can make brokers — and the rest of us — scrap all the strategizing and analyses and go for emotional, or gut, decisions.

\* at the helm: 실권을 가진 \*\* strewn: 표면을 뒤덮은

- ① How Information Overload Can Cloud Your Judgment
- ② Multitasking Increases Your Working Memory!
- ③ How to Prevent Information Flood
- ④ Do Flashing Screens Reduce Information Overload?
- ⑤ Emotional Judgment: The Secret of Successful Brokers

NOTE

출처 2018.6.29

2.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Some coaches erroneously believe that mental skills training (MST) can only help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 As a result, they shy away from MST, (A) denying / rationalizing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It is true that mental skill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they become more homogeneous in terms of physical skills. In fac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Consequently, any small difference in (B) physical / mental factors can play a huge role in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However, we can anticipate that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than in athletes not exposed to MST. In fact,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 may 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 Introducing MST (C) early / later in athletes' careers may lay the foundation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o their full potential.

\* homogeneous: 동질적인 \*\* optimal: 최적의

- |                 | (A)   | (B)      | (C)         |
|-----------------|-------|----------|-------------|
| ① denying       | ..... | physical | ..... later |
| ② denying       | ..... | mental   | ..... early |
| ③ rationalizing | ..... | physical | ..... early |
| ④ rationalizing | ..... | physical | ..... later |
| ⑤ rationalizing | ..... | mental   | ..... early |

NOTE

출처 수특영어.14강.8번

3.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The Romans used many highly flavoured herbs and spices, and it seems that they liked their food to have a highly complex and strong taste. One of the reasons for this might involve, but not overcome, a food ① safety issue. The Romans used lead to line many of their cooking and storage vessels. A lot of their food was quite acid and therefore ② dissolved the lead. It is clear from studies on Roman bones that they had a high body burden of lead, and indeed many of them must have been suffering from chronic lead poisoning. One of the symptoms of lead poisoning is ③ altered taste, often with a metallic taste in the mouth. Perhaps they tried to disguise the metallic taste with strong herbs and spices, or perhaps their sense of taste was so ④ strong due to lead poisoning that the only way that they could taste anything was to make it incredibly highly flavoured. Their desire for highly spiced food, for whatever reason, had a good knock-on effect. Many herbs and spices contain antibacterial chemicals, and so their ⑤ inclusion at high concentrations in Roman food probably reduced pathogen levels.

\* line: ~의 안벽을 붙이다 \*\* pathogen: 병원균

NOTE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In A.D. 541-542, the Plague of Justinian spread across the Eastern Roman Empire. It may have ① originated in Ethiopia or Egypt and is likely to have been carried to the empire's capital Constantinople from Egypt in grain ships. The plague swept across Europe and reached as ② far west as Ireland. The symptoms, described in detail by Procopius, ③ fit bubonic plague, making this the first known appearance of this disease in Europe. It has been suggested that 40% of the residents of Constantinople — and 25% of the residents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too — may have died. Further ④ outbreaks, less deadly and less extensive, occurred later in the 6th-8th centuries. By analogy with the Black Death, the impact of this level of death on contemporary society is likely to have been ⑤ minimal. The decline of slavery, the spread of Christianity and the collapse of the Eastern Roman Empire have all been seen as possible results of the plague.

\* bubonic plague: 선페스트(흑사병의 한 종류)

\*\* analogy: 유추

NOTE

출처 수특영어.14강.8번

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e Romans used many highly flavoured herbs and spices, and it seems that they liked their food to have a highly complex and strong taste. One of the reasons for this might involve, but not ① overcome, a food safety issue. The Romans used lead to line many of their cooking and storage vessels. A lot of their food was quite acid and therefore dissolved the lead. It is clear from studies on Roman bones ② which they had a high body burden of lead, and indeed many of them must have been suffering from chronic lead poisoning. One of the symptoms of lead poisoning ③ is altered taste, often with a metallic taste in the mouth. Perhaps they tried to disguise the metallic taste with strong herbs and spices, or perhaps their sense of taste was so poor due to lead poisoning that the only way that they could taste anything was to make it incredibly highly flavoured. Their desire for highly spiced food, for ④ whatever reason, had a good knock-on effect. Many herbs and spices contain antibacterial chemicals, and so ⑤ their inclusion at high concentrations in Roman food probably reduced pathogen levels.

\* line: ~의 안벽을 붙이다 \*\* pathogen: 병원균

NOTE





**Note**

◆ Shean.T's Comment ◆

정답: ①번.

무난하다. 첫 문장에 P단어를 잡고, 중간 예시는 빠르게 경충 된 뒤, 마지막 문장에 같은 P를 확인하고 답을 내면 되겠다. 1분은 절대 안 넘기고 푸셔야 한다. 핵심 P 문장과 이에 대한 부연 문장을 명확하게 구분하며 효율적으로 독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P(cause): 정보 과부하 → P(effect): 감정적 결정

◆ Vocabulary ◆

- |                         |               |              |            |
|-------------------------|---------------|--------------|------------|
| 1. information overload | 9. strategize | 1. 정보 과부하    | 9. 전략을 세우다 |
| 2. take into account    | 10. analysis  | 2. consider  | 10. 분석     |
| 3. net profits          | 11. gut       | 3. 순이익       | 11. 내장, 직관 |
| 4. stock value          | 12. cloud(v)  | 4. 추가        | 12. 흐리게 하다 |
| 5. weigh                | 13.           | 5. 저울질하다     | 13.        |
| 6. take up              | 14.           | 6. 차지하다      | 14.        |
| 7. overwhelmed          | 15.           | 7. 과도한       | 15.        |
| 8. scrap                | 16.           | 8. 버리다, 폐기하다 | 16.        |

◆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8.6.23(65%)

If you've ever seen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at a broker's desk, you have a sense of the information overload(P) they are up against.

만약 브로커의 책상에서 깜박이는 스크린 대열을 본 적이 있다면, / 스크린이 직면한 정보 과부하의 느낌을 가지게 된다.

**선택** 브로커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정보 과부하(information overload)'가 보이자마자 무조건 P로 반응. 이 지문은 정보 과부하라는 P에 대해 얘기하는구나, 머리에 박고, 뒤에 S가 나오는가 주목.

When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a company, for example, they may **take into account** the people at the helm; the current and potential size of its market; **net profits**; and its past, present, and future **stock value**, among other pieces of information.

예를 들어 한 회사에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 이들은 실권을 가진 사람들, 시장의 현재 및 잠재적 크기, 순이익, 과거, 현재, 미래 주식 가치들을 고려할 것이다, / 다른 정보들 중에서.

**선택** 첫 문장에서 overload를 P로 못 잡았다면, 이 for example을 보고 첫 문장을 다시 가서 읽고 ABPS를 잡아야 한다. 왜? '중요한 문장'이었으니 예시를 드는 것이므로. 그리고 P를 첫 문장에서 잡고 이 문장을 봤다면, for example 이후 내용을 읽으면 '바보'다. 왜? 안 읽어도 '정보 과부하' 예시겠지. 어떤 세부적인 예시인지는, 문제로 나오지 않는다.

**Weighing** all of these factors can **take up** so much of your working memory that it becomes overwhelmed(P).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가능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작동 기억을 차지해서 / 압도될 수 있다.

**선택** 예시를 정리해주시 보면, '압도된(overwhelmed)'이라는 P 단어가 확 들어온다. P로 체크하고 넘어간다.

**Think of** having piles and piles of papers, sticky notes, and spreadsheets **strewn** about your desk, and you get a picture of what's going on inside the brain.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종이, 포스트잇, 그리고 엑셀 종이 무더기를 생각해봐라, / 그러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상상이 될 것이다.

**선택** 생각해보자(Think of)는 사실상 예시를 드는 것. 또한 문장 중간에 사소한 물품들을 나열하는 걸 보고, 세부적 부연이라 눈치를 챌 수 있겠다.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빠르게 넘어간다.

When information overloads(P) working memory this way, it can make brokers — and the rest of us — **scrap** all the **strategizing** and **analyses** and go for emotional, or gut, decisions(P).

\* at the helm: 실권을 가진 \*\* strewn: 표면을 뒤덮은 정보가 작동 기억을 이러한 방식으로 과부하시킬 때, / 이는 브로커가 -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이 - 전략화나 분석은 모두 버리고 / 감정적인, 즉 직감에 의존한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선택** 쉽다. 마지막 문장에서 overloads를 P라고 치고, 그로 인한 문제의 '결과' 즉, '감정적 결정'을 P로 치면 마무리 되겠다. 여기에 인과관계의 논리를 더하자면, 문제의 원인이 overloads이고, 결과가 emotional decisions가 되겠다. 이를 그대로 서술한 1번으로 간다.

① How Information Overload(P) Can Cloud Your Judgment(P)

정보 과부하가 판단을 흐릿하게 하는 방식

② Multitasking Increases Your Working Memory!(off, not P)

멀티태스킹이 작업 기억을 증가시킨다!

③ How to Prevent Information Flood(S)

정보 홍수를 방지하는 방법

④ Do Flashing Screens(P) Reduce Information Overload?(off)(12%)

깜박이는 스크린이 정보 과부하를 줄여줄까?

→ 깜박이는 스크린을 S처럼 서술한 문장인데, 깜박이는 스크린은 정보 과부하를 나타내는 P이다!

⑤ Emotional Judgment: The Secret of Successful(반) Brokers

감정적 판단: 성공적인 브로커의 비밀

◆ Shean.T's Comment ◆

정답: ⑤번.

그 당시 EBS 직접연계였으나 지문 전반적인 AB도 있고, 그 속에 세부적 AB도 있어서, 살짝 국어 느낌이 나는, 좋은 문제다. 지문의 2/3 지점까지는 사실상 A 얘기만 하다가 2/3에서 However를 때리며 B로 전환, 어휘 (C)는 B로 답을 내고 있는 그 논리의 흐름을 잘 익혀두자.

A: 몇몇 코치, MST는 엘리트 선수들에게만 도움

< B: 필자, MST는 어린 초보 선수들에게도 도움!

◆ Vocabulary ◆

- |                  |                        |                 |                |
|------------------|------------------------|-----------------|----------------|
| 1. erroneously   | 9. expose A to B       | 1. 잘못되게, 틀리게    | 9. A를 B에 노출시키다 |
| 2. perfect(v)    | 10. lay the foundation | 2. 완벽하게 하다      | 10. 기반을 닦다     |
| 3. performance   | 11. potential          | 3. 수행, 성과       | 11. 잠재력        |
| 4. shy away from | 12.                    | 4. ~을 피하다, 멀리하다 | 12.            |
| 5. ladder        | 13.                    | 5. 사다리          | 13.            |
| 6. factor        | 14.                    | 6. 요인           | 14.            |
| 7. determine     | 15.                    | 7. 결정하다         | 15.            |
| 8. outcome       | 16.                    | 8. 결과           | 16.            |

◆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8.6.29(50%)

Some coaches(A) **erroneously** believe that mental skills training (MST) can only help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A).

일부 코치들은 잘못 믿고 있다 / 정신 능력 훈련(MST)이 고도로 숙련된 선수들의 기량을 완벽하게 하는 데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선택** 첫 문장 'erroneously(잘못되게)'에서 코치는 필자가 깔려고 등장시키는 A(통념)라고 잡을 수 있고, 이들이 믿는 내용은 P가 되겠다. MST는 '높은 수준 선수만' 도움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게 A잖아. 필자 의견 B는 필까? '아니다, 낮은 수준 선수도 도움 받는다'겠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어지는 습관을, AB를 통해서(이 경우 높은 수준, 낮은 수준) 가지셔야 한다. 생각의 습관이다.

As a result, **they**(A) **shy away from** MST, (A) **denying** / **rationalizing**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A),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그 결과, 그들은 정신 능력 훈련을 멀리한다 / 자신이 엘리트 선수를 지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신 능력 훈련이 덜 중요하다고 합리화하면서.

**선택** they는 코치들, 즉 A이므로, 어휘 (A)에는 이 A의 통념이 나오면 되겠다. 이들의 통념은 '높은 수준 선수(엘리트 선수)'가 아니면 MST는 필요 없다,는 것이니,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되겠다. 이를 부정(denying)하는 것은, '필자 (B)'일테고.

It is true that mental skill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A).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they become more homogeneous in terms of physical skills.

높은 경쟁 수준에서 정신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 선수들이 경쟁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 신체 능력의 측면에서는 더 동질적인 수준이 된다.

**선택** 여기서 It is true that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보통 필자가 A를 까다가 이 표현이 나오면 '(물론) 사실이지..'하면서 A를 나름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두 문장도 마찬가지.

In fac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Consequently, any small difference in (B) **physical** / **mental factors** can play a huge role in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실제로, 높은 경쟁 수준에서는, / 모든 선수가 성공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 / 결과적으로, 정신적 요인에서의 어떠한 작은 차이이라 하더라도 / 경기 결과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선택** 앞 부분에서도 그렇고, MST는 정신 능력인데 신체 능력 얘기가 같이 나오므로 이 둘을 가벼운 AB로(신체 < 정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지문의 전체 핵심 AB는 아니므로, 표시는 하지 않고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처리해서, '신체' 능력은 비슷하니까 '정신' 능력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대립성을 느끼면서, 어휘 (B)에서 mental을 고를 수 있겠다.

**However**, we can anticipate that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B)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than in athletes **not exposed to MST**.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경기력이 더 빠르게 진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정신 능력 훈련을 받는 어리고 성장 중인 선수에게서 / 정신 능력 훈련을 받지 않는 선수에게 보다는.

**선택** A를 인정하는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however가 나왔다. 뻔! B가 나올 것이다. A가 엘리트 선수들이었으니, 이와 반대되는 선수들이 나올거라 예상.하고. 그걸 찾아 잡으니 '어리고, 성장 중인(young, developing)' 선수들이다. 읽지 않아도 이미, 이 친구들에게 MST가 유용하다는 내용이겠거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In fact,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 may 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B). Introducing MST (C) **early** / **later** in athletes' careers may **lay the foundation**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o their full potential**(B).

\* homogeneous: 동질적인 \*\* optimal: 최적의  
실제로, 정신 능력 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은 / 선수들이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일지도 모른다. / 선수생활의 초기에 정신 능력 훈련을 도입하는 것은 / 그들이 잠재 능력의 최고치까지 발달하도록 도움 기반을 닦을 수 있다.

**선택** 크.. 문제 잘냈다. 결국 (C)는 B를 물어보는데, 그 AB의 구분을, 운동 시작 '초기(early), 후기(later)'로 해주고 있다. B는 아직 실력이 출중하지 못한 선수들로, 운동 시작 '초기(early)' 선수들로 분류될 수 있겠다. 답은 5번!

- |                 |       |          |                  |
|-----------------|-------|----------|------------------|
|                 | (A)   | (B)      | (C)              |
| ① denying       | ..... | physical | ..... later      |
| ② denying       | ..... | mental   | ..... early(18%) |
| ③ rationalizing | ..... | physical | ..... early(17%) |
| ④ rationalizing | ..... | physical | ..... later      |
| ⑤ rationalizing | ..... | mental   | ..... early      |

◆ Summary ◆

어휘 정답: ④번. | 어법 정답: ②번.

① 로마인들은 음식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향신료를 강하게 사용함

② P: 로마인들의 음식에 납 포함 → P: 납 중독 및 금속 맛으로 미각 쇠퇴

→ S: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여 맛/향을 느낌

③ S: 향신료에 항균 효과도 있어 납 중독으로 인한 병원균 감소

◆ Vocabulary ◆

- |                |                   |            |            |
|----------------|-------------------|------------|------------|
| 1. flavo(u)red | 9. chronic        | 1. 향기가 나는  | 9. 만성적인    |
| 2. overcome    | 10. poisoning     | 2. 극복하다    | 10. 중독     |
| 3. lead(n)     | 11. metallic      | 3. 납       | 11. 금속성의   |
| 4. vessel      | 12. disguise      | 4. 선박, 용기  | 12. 위장하다   |
| 5. acid        | 13. incredibly    | 5. 산성의     | 13. 믿기 어렵게 |
| 6. dissolve    | 14. knock-on      | 6. 용해시키다   | 14. 연쇄적인   |
| 7. body burden | 15. antibacterial | 7. 체내 축적   | 15. 항균성의   |
| 8. suffer from | 16. concentration | 8. ~로 고통받다 | 16. 농도, 농축 |

◆ Shean.T's Grammar ◆

① 병렬. but을 통해 involve와 병렬되는 것 확인. might라는 조동사에 걸리므로 동사 원형 맞다.

② which 뒤는 불완전한 문장. 현대 S V O가 모두 나와있다. that으로 수정해야 하고, 수정하고 보니 바로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구문이었던 것. 요즘 평가원 어법은 이렇게 구문과 많이 결합하니 꼭 챙겨두도록 하자.

③ 수일치. One of 복수명사는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 One이 주어이므로. 외워두자!

④ 한정사 whatever. 사실 선택지는 한정사 이런 용어도 좀 지양하려는 편이고, 그저 whatever가 '~하는 무엇이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떠한(무슨) 이유'로 든'이라고 해석해보니 문제 없네~하고 넘어가는 걸 추천한다.

⑤ 대명사. 해석을 통해 Many herbs and spices를 받는 걸 확인한다. 복수 맞다.

◆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수특영어.14강.8번

①

The Romans used many highly flavoured herbs and spices, and it seems that they liked their food to have a highly complex and strong taste. One of the reasons for this might involve, but not overcome, a food ① safety issue(P).

로마인들은 향이 강한 허브와 향신료를 많이 사용했다, / 그리고 그들은 원했던 것 같다 / 자신들의 음식이 매우 복잡적이고 강한 맛이 나기를, / 이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관련 될 수는 있지만, / 그것을 극복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 식품 안전 문제를.

선택지 로마인들은 음식에 향신료를 많이 썼구나- 정도의 키워드. 그리고 이는 '음식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 가볍게 P로 잡아주는 정도면 좋겠다. 이 뒤를 P 느낌으로 읽어야겠다 하면 최고.

선택지 1번 safety는 사실 지문을 다 읽고 나서야 알 수 있다. 지문의 마지막에, 의도치 않게 강한 향신료가 항균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병원균을 줄이는 안전 조치 역할을 했으므로, safety가 맞다.

②

The Romans used lead to line many of their cooking and storage vessels. A lot of their food was quite acid and therefore ② dissolved the lead(P). It is clear from studies on Roman bones that they had a high body burden of lead(P), and indeed many of them must have been suffering from chronic lead poisoning(P). One of the symptoms of lead poisoning is ③ altered taste, often with a metallic taste(P) in the mouth. Perhaps they tried to disguise the metallic taste with strong herbs and spices(S), or perhaps their sense of taste was so ④ poor(P ← strong) due to lead poisoning that the only way that they could taste anything was to make it incredibly highly flavoured(S).

로마인들은 납을 사용했다 / 많은 요리 용기와 저장 용기의 안벽을 붙이기 위해. / 그들의 많은 음식은 상당히 산성이어서 그 납을 녹였다. / 로마인의 뼈에 대한 연구로 보면 분명하다 / 납의 체내 축적이 높았던 것이, / 그리고 실제로 그들 중 많은 수가 만성 납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 납 중독 증상 중 하나는 맛의 변화이다, / 혼

히 입안에서 금속성의 맛이 나는 것과 함께. / 아마도 그들은 강한 허브와 향신료로 금속성의 맛을 감추기 위해 애썼을 것이다, / 혹은 아마도 납 중독 때문에 그들의 미각이 너무 나빠져서 / 무엇이든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청나게 강한 맛이 나게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선택지 납 중독 → 금속 맛으로 P를 이어오고, 이 금속 맛이라는 P를 없애기 위해 강한 향신료를 사용했다는 로직 S로 연결하자.

선택지 2, 3, 4번 선지 모두 P의 프레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음식에 납이 들어 있는데 산성 음식이 납을 용해시켜(dissolved) 음식에 납이 녹아 있으니 P이고, 그로 인해 맛 또한 바뀌어서(altered), 금속 맛이 나므로 P이다. 4번도 마찬가지. 미각이 강하면(strong) P가 아니고 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미각이 나빠서(poor) P이므로 향을 강하게 하는 S 조치를 취한 것!

③

Their desire for highly spiced food, for whatever reason, had a good knock-on effect. Many herbs and spices contain antibacterial chemicals(S), and so their ⑤ inclusion at high concentrations in Roman food probably reduced pathogen levels(S).

\* line: ~의 안벽을 붙이다 \*\* pathogen: 병원균

향신료가 강한 음식에 대한 그들의 욕구는, / 어떤 이유에서든, 좋은 연쇄 효과를 가져왔다. / 많은 허브와 향신료는 항균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 따라서 그것이 로마 음식에 고농도로 함유된 것은 아마도 병원균의 수치를 감소시켰을 것이다.

선택지 금속 맛을 없애기 위해 넣은 향신료가 예기치 못하게 항균 작용을 하면서 납 중독으로 인한 병원균을 감소시키는 S 역할 하는 것 확인. 당연히 이 S를 '포함(inclusion)' 해야 병원균이 줄어들겠다. 배제(exclusion)가 아니라 (배제를 상정하고 밀줄 선지를 긋는 것... 평가원도 항상 이렇다).

◆ Shean.T's Comment ◆

정답: ⑤번.

\* 소재: EBS 원문은 로마인들이 종금속이라는 P에 시달리고, 강한 향신료가 예기치 못하게 이에 대한 S로 작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간접연계 지문은, 마찬가지로 로마인의 P(선페스트)에 대해 얘기한다는 점에서 연결성이 있다. 다만 이 지문은 S가 나오지 않고, 지문 전반적으로 P!!!만 강조하다 마무리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① 사실상 1번을 제외한 2~5번의 모든 선지를 P의 프레임에서 바라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1번이야 ~에서 기원하다(originate in)라는 표현이므로 무난히 맞다. 2번은 P의 관점에서 그만큼 멀리(far) 퍼져야 P이므로 맞고, 3번 또한 이 역병이 선페스트에 부합하는(fit), 그래서 이 질병의 첫 등장이라는 P가 된 것이므로 문제 없다.

② 4번 outbreak는 '발발'이라는 뜻으로, 보통 전쟁이나 질병과 함께 쓰인다. 추가적인 P가 발발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 없다. 다만, 이러한 죽음의 수준이 당대 사회에서는 최소한(minimal)이었을 거라는 5번은, 전혀 P가 아닌 단어이다. 따라서 P가 상당했을 거라는 의미의 considerable(상당한)으로 수정해야 한다.

◆ Vocabulary ◆

1. plague	9. outbreak	1. 역병	9. 발발
2. empire	10. deadly	2. 제국	10. 치명적인
3. originate in	11. extensive	3. ~에서 유래하다	11. 광범위한
4. sweep across	12. contemporary	4. ~을 휩쓸다	12. 동시대의
5. symptom	13. considerable	5. 증상	13. 상당한
6. appearance	14. decline	6. 출현	14. 감소, 쇠퇴
7. resident	15. slavery	7. 거주자	15. 노예 제도
8. further	16. collapse	8. 이후의, 추가적인	16. 붕괴

◆ KISS Logic & Interpretation ◆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In A.D. 541-542, the Plague of Justinian(P) spread across the Eastern Roman Empire. It(P) may have ① originated in Ethiopia or Egypt and is likely to have been carried to the empire's capital Constantinople from Egypt in grain ships. The plague swept across Europe and reached as ② far west as Ireland. The symptoms(P), described in detail by Procopius, ③ fit bubonic plague, making this the first known appearance of this disease in Europe. It has been suggested that 40% of the residents of Constantinople — and 25% of the residents of the Eastern Mediterranean, too — may have died(P). Further ④ outbreaks(P), less deadly and less extensive, occurred later in the 6th-8th centuries. By analogy with the Black Death, the impact of this level of death on contemporary society is likely to have been ⑤ considerable(← minimal). The decline of slavery, the spread of Christianity and the collapse of the Eastern Roman Empire have all been seen as possible results of the plague.

\* bubonic plague: 선페스트(흑사병의 한 종류) \*\* analogy: 유추

서기 541년부터 542년까지, /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동로마제국 전역에 퍼졌다. / 그것은 에티오피아나 이집트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고 / 이집트에서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 곡물선을 통해서. / 그 역병은 유럽 전역을 휩쓸었고 멀리 서쪽으로는 아일랜드까지 퍼졌다. / Procopius가 상세히 기술한 그 증상이 선페스트와 부합하면서, / 이 역병은 유럽에서 최초로 출현한 선페스트로 알려지게 되었다. / 설이 제기되어 왔다 / 콘스탄티노플 거주민의 40퍼센트와 — 또한, 지중해 동부 지역 거주민의 25퍼센트가 — / 사망했을 수 있다는. / (그보다) 덜 치명적이고 덜 광범위한 추후 발병이 이후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있었다. / 흑사병으로 유추해 보면, / 당대 사회에서 이런 수준의 사망의 영향은 상당했을 것이다. / 노예제도의 쇠퇴, 기독교의 전파, 그리고 동로마제국의 붕괴는 모두 여겨져 왔다 / 그 역병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로.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23(65%)

If you've ever seen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at a broker's desk, you have a sense of the **information overload** they are up against. When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a company, for example, they may **take into account** the people at the helm; the current and potential size of its market; **net profits**; and its past, present, and future **stock value**, among other pieces of information. **Weighing** all of these factors can **take up** so much of your working memory that it becomes **overwhelmed**. Think of having piles and piles of papers, sticky notes, and spreadsheets **strewn** about your desk, and you get a picture of what's going on inside the brain. When information overloads working memory this way, it can make brokers — and the rest of us — **scrap** all the **strategizing** and **analyses** and go for emotional, or **gut**, decisions.

\* at the helm: 실권을 가진 \*\* strewn: 표면을 뒤덮은

- ① How Information Overload Can Cloud Your Judgment
- ② Multitasking Increases Your Working Memory!
- ③ How to Prevent Information Flood
- ④ Do Flashing Screens Reduce Information Overload?
- ⑤ Emotional Judgment: The Secret of Successful Brokers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영어) ◆

◆ Vocabulary Test ◆

- |                         |     |
|-------------------------|-----|
| 1. information overload | 1.  |
| 2. take into account    | 2.  |
| 3. net profits          | 3.  |
| 4. stock value          | 4.  |
| 5. weigh                | 5.  |
| 6. take up              | 6.  |
| 7. overwhelmed          | 7.  |
| 8. scrap                | 8.  |
| 9. strategize           | 9.  |
| 10. analysis            | 10. |
| 11. gut                 | 11. |
| 12. cloud(v)            | 12. |
| 13.                     | 13. |
| 14.                     | 14. |
| 15.                     | 15. |
| 16.                     | 16. |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23(65%)

If you've ever seen the bank of flashing screens at a broker's desk, you have a sense of the **information overload(P)** they are up against. When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a company, **for example**, they may **take into account** the people at the helm; the current and potential size of its market; **net profits**; and its past, present, and future **stock value**, among other pieces of information. **Weighing** all of these factors can **take up** so much of your working memory that it becomes **overwhelmed(P)**. **Think** of having piles and piles of papers, sticky notes, and spreadsheets **strewn** about your desk, and you get a picture of what's going on inside the brain. When **information overloads(P)** working memory this way, it can make brokers — and the rest of us — **scrap** all the **strategizing** and **analyses** and go for emotional, or **gut**, decisions(P).

\* at the helm: 실권을 가진 \*\* strewn: 표면을 뒤덮은

- ① How Information Overload(P) Can Cloud Your Judgment(P)  
정보 과부하가 판단을 흐릿하게 하는 방식
- ② Multitasking Increases Your Working Memory!(off, not P)  
멀티태스킹이 작업 기억을 증가시킨다!
- ③ How to Prevent Information Flood(S)  
정보 홍수를 방지하는 방법
- ④ Do Flashing Screens(P) Reduce Information Overload?(off)(12%)  
깜박이는 스크린이 정보 과부하를 줄여줄까?  
→ 깜박이는 스크린을 S처럼 서술한 문장인데, 깜박이는 스크린은 정보 과부하를 나타내는 P이다!
- ⑤ Emotional Judgment: The Secret of Successful(반) Brokers  
감정적 판단: 성공적인 브로커의 비밀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해석 및 표현) ◆

◆ Vocabulary Test ◆

- |                         |              |
|-------------------------|--------------|
| 1. information overload | 1. 정보 과부하    |
| 2. take into account    | 2. consider  |
| 3. net profits          | 3. 순이익       |
| 4. stock value          | 4. 추가        |
| 5. weigh                | 5. 저울질하다     |
| 6. take up              | 6. 차지하다      |
| 7. overwhelmed          | 7. 과도한       |
| 8. scrap                | 8. 버리다, 폐기하다 |
| 9. strategize           | 9. 전략을 세우다   |
| 10. analysis            | 10. 분석       |
| 11. gut                 | 11. 내장, 직관   |
| 12. cloud(v)            | 12. 흐리게 하다   |
| 13.                     | 13.          |
| 14.                     | 14.          |
| 15.                     | 15.          |
| 16.                     | 16.          |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29(50%)

Some coaches **erroneously** believe that mental skills training (MST) can only help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 As a result, they **shy away from** MST, (A) denying / rationalizing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It is true that mental skill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they become more homogeneous in terms of physical skills. In fac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Consequently, any small difference in (B) physical / mental **factors** can play a huge role in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However, we can anticipate that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than in athletes not **exposed to** MST. In fact,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 may 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 Introducing MST (C) early / later in athletes' careers may **lay the foundation**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o their full **potential**.

\* homogeneous: 동질적인 \*\* optimal: 최적의

- |                 | (A)   | (B)      | (C)         |
|-----------------|-------|----------|-------------|
| ① denying       | ..... | physical | ..... later |
| ② denying       | ..... | mental   | ..... early |
| ③ rationalizing | ..... | physical | ..... early |
| ④ rationalizing | ..... | physical | ..... later |
| ⑤ rationalizing | ..... | mental   | ..... early |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영어) ◆

◆ Vocabulary Test ◆

- |                        |     |
|------------------------|-----|
| 1. erroneously         | 1.  |
| 2. perfect(v)          | 2.  |
| 3. performance         | 3.  |
| 4. shy away from       | 4.  |
| 5. ladder              | 5.  |
| 6. factor              | 6.  |
| 7. determine           | 7.  |
| 8. outcome             | 8.  |
| 9. expose A to B       | 9.  |
| 10. lay the foundation | 10. |
| 11. potential          | 11. |
| 12.                    | 12. |
| 13.                    | 13. |
| 14.                    | 14. |
| 15.                    | 15. |
| 16.                    | 16. |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29(50%)

Some coaches(A) **erroneously** believe that mental skills training (MST) can only help **perfect** the **performance** of highly skilled competitors(A). As a result, they(A) shy away from MST, (A) denying / **rationalizing** that because they are **not** coaching elite athletes(A), mental skills training is less important. **It is true that** mental skill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A). As athletes move up the competitive **ladder**, they become more homogeneous in terms of physical skills. In fact, at high levels of competition, all athletes have the physical skills to be successful. Consequently, any small difference in (B) physical / **mental factors** can play a huge role in **determining** performance **outcomes**. **However**, we can anticipate that personal growth and performance will progress faster in young, developing athletes(B) who are given mental skills training than in athletes not **exposed to MST**. In fact, **the optimal time** for introducing MST may be when athletes are first beginning their sport(B). Introducing MST (C) **early** / later in athletes' careers may **lay the foundation** that will help them develop to their full potential(B).

\* homogeneous: 동질적인 \*\* optimal: 최적의

- |   | (A)           | (B)            | (C)              |
|---|---------------|----------------|------------------|
| ① | denying       | ..... physical | ..... later      |
| ② | denying       | ..... mental   | ..... early(18%) |
| ③ | rationalizing | ..... physical | ..... early(17%) |
| ④ | rationalizing | ..... physical | ..... later      |
| ⑤ | rationalizing | ..... mental   | ..... early      |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해석 및 표현) ◆

◆ Vocabulary Test ◆

- |                        |                 |
|------------------------|-----------------|
| 1. erroneously         | 1. 잘못되게, 틀리게    |
| 2. perfect(v)          | 2. 완벽하게 하다      |
| 3. performance         | 3. 수행, 성과       |
| 4. shy away from       | 4. ~을 피하다, 멀리하다 |
| 5. ladder              | 5. 사다리          |
| 6. factor              | 6. 요인           |
| 7. determine           | 7. 결정하다         |
| 8. outcome             | 8. 결과           |
| 9. expose A to B       | 9. A를 B에 노출시키다  |
| 10. lay the foundation | 10. 기반을 닦다      |
| 11. potential          | 11. 잠재력         |
| 12.                    | 12.             |
| 13.                    | 13.             |
| 14.                    | 14.             |
| 15.                    | 15.             |
| 16.                    | 16.             |

**Weekly**  
**KISS**



**Keep It Slow but Steady,  
You Win the Race!**



**Day 3**  
◆ **Week 5** ◆



출처 2018.6.32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olitics cannot be suppressed, whichever policy process is employed and however sensitive and respectful of differences it might be. In other words, there is no end to politics. It is wrong to think that proper institutions, knowledge, methods of consultation, or participatory mechanisms can make disagreement go away. Theories of all sorts promote the view that there are ways by which disagreement can be processed or managed so as to make it disappear. The assumption behind those theories is that disagreement is wrong and consensus is the desirable state of things. In fact, consensus rarely comes without some forms of subtle coercion and the absence of fear in expressing a disagreement is a source of genuine freedom. Debates cause disagreements to evolve, often for the better, but a positively evolving debate does not have to equal a reduction in disagreement. The suppression of disagreement should never be made into a goal in political deliberation. A defense is required against any suggestion that \_\_\_\_\_ . [3점]

\* consensus: 합의 \*\* coercion: 강압

- ① political development results from the freedom of speech
- ② political disagreement is not the normal state of things
- ③ politics should not restrict any form of difference
- ④ freedom could be achieved only through tolerance
- ⑤ suppression could never be a desirable tool in politics

NOTE

출처 2018.6.33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o make plans for the future, the brain must have an ability to take certain elements of prior experiences and reconfigure them in a way that does not copy any actual past experience or present reality exactly. To accomplish that, the organism must go beyond the mere ability to form internal representations, the models of the world outside. It must acquire the ability to \_\_\_\_\_. We can argue that tool-making, one of the fundamental distinguishing features of primate cognition, depends on this ability, since a tool does not exist in a ready-made form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as to be imagined in order to be made. The neural machinery for creating and holding ‘images of the future’ wa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tool-making, and thus for launching human civilization. [3점]

- ① mirror accurate images of the world outside
- ② manipulate and transform these models
- ③ visualize the present reality as it is
- ④ bring the models back from memory
- ⑤ identify and reproduce past experiences faithfully

NOTE

출처 수특영어.15강.3번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paradox of human culture is that many of the technological and biomedical breakthroughs that revolutionized how and how long we live have been strongly opposed at their inception. This is true not only of those who may not understand the science behind each breakthrough, but of scientists — a fact alluded to by the physicist Max Planck: “a new scientific truth does not triumph by convincing its opponents and making them see the light, but rather because its opponents eventually die, and a new generation grows up that is familiar with it.” Most of us are alive today only because we have benefited from the innumerable advances in public health and medicine over the last century, from vaccines and antibiotics to modern surgical techniques and cancer therapies. Yet most transformative biomedical advances \_\_\_\_\_, from vaccines to organ transplants and in vitro fertilization, and today the same holds true for stem-cell research.

\* inception: 초기 \*\* antibiotics: 항생제

\*\*\* in vitro fertilization: 시험관 수정

- ① have turned out to be in vain
- ② are not achieved by scientists alone
- ③ have met with significant resistance
- ④ are followed by disastrous side effects
- ⑤ have brought a new paradigm to human culture

NOTE

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However, the rate of change is now manifestly so rapid that it is creating technological anxiety.

Resistance to innovation is a problem because it may deny society the opportunity to use new technologies to address a variety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governance challenges. ( ① ) This is why it is important for society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ources of opposition to technology rather than rely on clichés such as “resistance is futile” or a dismissive reference to Luddites. ( ② ) There is a paradox of mounting economic and ecological challenges and accelera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 ( ③ ) This would suggest that humanity has more opportunities to address the challenges using new technologies. ( ④ ) This could lead to low rates of technology adoption and general disenchantment with innovation. ( ⑤ ) There is general disquiet over emerging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gene editing, robotics, drones and 3D printing.

\* disenchantment: 각성 \*\* disquiet: 불안, 동요

NOTE

출처 수특영어.15강.3번

5.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paradox of human culture is that many of the technological and biomedical breakthroughs that revolutionized how and how long we live (A) has / have been strongly opposed at their inception. This is true not only of those who may not understand the science behind each breakthrough, but of scientists — a fact (B) alluded / alluding to by the physicist Max Planck: “a new scientific truth does not triumph by convincing its opponents and making them see the light, but rather because its opponents eventually die, and a new generation grows up that is familiar with it.” Most of us are alive today only because we have benefited from the innumerable advances in public health and medicine over the last century, from vaccines and antibiotics to modern surgical techniques and cancer therapies. Yet most transformative biomedical advances have met with significant resistance, from vaccines to organ transplants and in vitro fertilization, and today the same (C) holds / holding true for stem-cell research.

\* inception: 초기 \*\* antibiotics: 항생제

\*\*\* in vitro fertilization: 시험관 수정

- | (A)          | (B)            | (C)     |
|--------------|----------------|---------|
| ① has .....  | alluding ..... | holds   |
| ② have ..... | alluding ..... | holds   |
| ③ have ..... | alluded .....  | holds   |
| ④ has .....  | alluding ..... | holding |
| ⑤ have ..... | alluded .....  | holding |

NOTE

**Note**

◆ Shean.T's Comment ◆

정답: ②번.

AB 최고급 난이도 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지문이 정말 어렵고 단어도 모르고 무슨 애긴지도 모르겠을 때' 핵심 키워드들만 AB를 잡고 그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 지문의 핵심 논리만 이해해서 답을 내는 연습!을 하기 좋은, 그리고 난이도 있는 지문이다. 필자가 어떤 키워드를 까고 어떤 키워드를 옹호하는지, 집요하게 물어보며 독해하자.

A: 정치는 억압되고 합의되어야 함

< B: 정치에서 토론, 불화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것

◆ Vocabulary ◆

- |                     |                            |                 |                   |
|---------------------|----------------------------|-----------------|-------------------|
| 1. politics         | 9. assumption              | 1. 정치적 견해, 정치   | 9. 견제, 가정         |
| 2. be respectful of | 10. state of things        | 2. ~을 존중하다      | 10. 상황            |
| 3. proper           | 11. subtle                 | 3. 적절한, 알맞은     | 11. 교묘한, 포착하기 어려운 |
| 4. institution      | 12. genuine                | 4. 제도, 기관, 조직   | 12. 진정한, 진짜의      |
| 5. consultation     | 13. evolve                 | 5. 협의, 토의, 상담   | 13. 전개되다, 발달하다    |
| 6. participatory    | 14. political deliberation | 6. 참여의, 참가하는    | 14. 정치 속의         |
| 7. disagreement     | 15. suggestion             | 7. 의견 차이, 의견 충돌 | 15. 의견, 제안, 암시    |
| 8. promote          | 16.                        | 8. 조장하다, 홍보하다   | 16.               |

◆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8.6.32(48%)

Politics cannot be suppressed(A), whichever policy process is employed and however sensitive and respectful of differences it might be. In other words, there is no end(A) to politics.

정치(정치 견해)는 억압될 수 없다, / 어떤 정책 과정이 사용되든, 그리고 그 정책 과정이 얼마나 민감하고 차이를 얼마나 존중하든. / 다시 말해, 정치적 견해에는 끝이 없다.

선택 읽고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단박에 이해되면 지금 이 책 볼 필요 없다. 읽고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고, 그래도 문제 푸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두 문장을 읽고 제일 안 좋은 습관은 'whichever' 부분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이해가 안 돼 튕겨나가는 것. 좋은 습관은 not A 정도만 잡아서, 아 '정치는 억압 안 되고, 끝이 없는 것이라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뒤에서 더 명확하고 쉽게 지문의 논지를 얘기해줄 것이다.

It is wrong to think that proper institutions, knowledge, methods of consultation, or participatory mechanisms can make disagreement go away(A).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 적절한 제도, 지식, 협의 방법, 혹은 참여 장치가 의견 차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선택 'wrong'을 통해 that절이 A임을 잡는다. 주어가 나열되면서 굉장히 길고 어려운 단어들 많은데, 별로 연관성도 없다. 따라서 나열된 주어보다는 목적어 disagreement에 집중해서 이해해보자. '이러한 것들이 의견 불일치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 우리 생각하자 생각. '통념'은 불일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 '필자'는? 불일치가 사라질 수 없다는 것! 여기서 필자는 오히려 '정치 견해에 있어 불일치를 ○스하는구나, 불일치 자체는 B구나'라고 잡으면 최고. 아니고 that절 전체를 A로 잡아도 충분!

Theories of all sorts(A) promote the view(A) that there are ways by which disagreement can be processed or managed so as to make it disappear(A). The assumption behind those theories(A) is that disagreement(B) is wrong and consensus(A) is the desirable state of things.

온갖 종류의 이론이 견해를 조장한다 / 의견 차이가 처리되거나 이를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 의견 차이를 없애기 위해. / 그런 이론들의 배경에 있는 가정은 / 의견 차이는 잘못된 것이고 / 의견 일치가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선택 이 덩어리 첫 문장에서 또 'disagreement'가 보이면서, 이 단어가 핵심 어구나 정도 잡을 수 있고, 계속 A관점이 이어져오고 있다. 두번째 문장이 '확실히' 이 지문의 AB를 잡을 수 있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 주어의 '이러한 이론들이 조장하는 관점'이라는 뉘앙스 자체가, 필자가 이 관점을 '까는' 부분이다. A의 의견은 disagreement(불화)가 잘못된 것이고 consensus(합의)는 좋은 것이라는 것. 여기서 중요!! 필자의 의견은 이에 반대겠다. 반대여야만 한다. 따라서 필자의 입장에선, disagreement가 B이고, consensus가 A임을 잡을 수 있겠다. 여기서 이 지문은 확실히 잡혔고, 잡혀야만 한다. '아, 정치에서 오히려 consensus보다 disagreement가 중요하다는 지문이군!' 지문을 여러 번 읽더라도 이 부분에서 이걸 잡으면 게임이 끝나는 것이다. 이제 내려가면서는 AB를 확실히 느끼고 분류하며 나아가간다.

In fact, consensus(A) rarely comes without some forms of subtle coercion(P) and the absence of fear in expressing a disagreement(B) is a source of genuine freedom(B).

실제로는, 몇몇 형태의 교묘한 강압이 없이 합의가 이뤄지는 일은 드물며, / 의견을 표현할 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진정한 자유의 원천이다.

선택 말 정말 어렵게 한다. 이 속에서도 자아아아알, AB를 분류하고 '뉘앙스'를 느껴야 한다. 우선 rarely와 without을 통해 이중부정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긍정으로 바꾸면, '합의는 미묘한 강압의 형태로 온다' 정도가 되겠고, 여기서 '강압'이라는 단어의 세부적 의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P임을 잡는 게 중요하다. 또한 disagreement를 표현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자유!!라는 얘기에서,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좋은 것이군' 정도로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 즉, 이 문장은 A는 P가 있다고 까고, B는 자유를 준다,는 문장이 되고, 따라서 연결사 In fact가, '실제로는'이라는 뉘앙스로, 약간의 역접 역할을 한다.

Debates(B) cause disagreements(B) to evolve, often for the better, but a positively evolving debate(B) does not have to equal a reduction in disagreement(B).

논쟁은 이견들을 종종 더 나은 쪽으로 전개시키지만, / 긍정적으로 전개되는 논쟁이 반드시 의견 차이의 감소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선택 역시나 말이 참 어려운데, debate라는 것이 등장을 하니 이것이 A인지 B인지 분류만 하면 된다. but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but 앞뒤 모두, debate와 disagreement의 정비례 관계를 얘기한다, 정도만 파악하면, debate도 B로 분류 가능하겠다. 상식적으로 이해해보면, 토론과 의견 불일치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되겠다.

The suppression(A) of disagreement should never be made into a goal in political deliberation. A defense is required against any suggestion that \_\_\_\_\_ (A or not B). [3점]

\* consensus: 합의 \*\* coercion: 강압  
의견 차이의 억압이 결코 정치 속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의견에도 맞서는 방어가 필요하다 / 정치적 의견 차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에 맞서는.

선택 disagreement를 억압하는 것은, B를 깎아내리는 것이므로 not B라고 볼 수도 있고, 지문의 맨 첫 문장의 suppressed가 A였으니 A라고 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봐도 같은 얘기. 그리고 빈칸 문장. 빈칸이라는 의견을 '반대해서 (against)' defense 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빈칸엔 A, 혹은 not B가 들어가겠다. disagreement(B)를 정상이 아니라고 까고 있는 2번으로 가면 되겠다.

- ① political development results from the freedom of speech(off)  
정치적 발전은 언론의 자유에서 나온다는
- ② political disagreement is not the normal state of things(not B)  
정치적 의견 차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 ③ politics should not restrict any form of difference(off, 비약)  
정치는 어떤 형태의 차이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 ④ freedom could be achieved only through tolerance(off)  
자유는 관용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 ⑤ suppression could never be a desirable tool in politics(not A=B)  
억압은 정치에서 절대 바람직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 Shean.T's Comment ◆

정답: ②번.

추상적인 내용에서, 'AB'의 기본 개념을 '크게' 능동 수동으로 잡아 이해하여 답을 내는 문제. 모든 걸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 A는 수동, B는 능동일 뿐이다. 제발 세부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어떻게 내 언어로 일반화하여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하자. 그게 KISS Logic!

A: 과거나 현재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 B: 과거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 Vocabulary ◆

- |                            |                      |          |              |
|----------------------------|----------------------|----------|--------------|
| 1. element                 | 9. cognition         | 1. 요소    | 9. 인지(력)     |
| 2. reconfigure             | 10. neural machinery | 2. 재구성하다 | 10. 신경 기계    |
| 3. internal representation | 11. prerequisite     | 3. 내적 표상 | 11. 전제 조건    |
| 4. acquire                 | 12. launch           | 4. 습득하다  | 12. 시작(출시)하다 |
| 5. fundamental             | 13.                  | 5. 근본적인  | 13.          |
| 6. distinguishing          | 14.                  | 6. 독특한   | 14.          |
| 7. feature(n)              | 15.                  | 7. 특징    | 15.          |
| 8. primate                 | 16.                  | 8. 영장류   | 16.          |

◆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2018.6.33(43%)

To make plans for the future, the brain **must** have an ability to take certain **elements** of prior experiences and **reconfigure** them(B) in a way that does **not** copy any actual past experience or present reality exactly(A).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 뇌가 이전 경험의 특정 요소를 받아들여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 어떤 실제적인 과거 경험이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 첫 문장부터 must,가 나오니 강력한 B이다. 현대 B가 길다. 이 진술 속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확실히 잡으면 좋다. 이 경우에는, 뭔가를 받아들여 '재구성(reconfigure)'하는 것이 B의 핵심어가 되겠다. 뒤에는 'not'이 보이므로 not A 느낌을 주고, 역시 A의 핵심어를 잡으면 그대로 'copy'하는 게 되겠다. '상식적으로도' 이 둘의 대립성을 느껴야 한다. 아, 뭔가를 할 때(이 경우 미래를 계획할 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건 A, 그게 아니라 내가 재구성하는 건 B. 조금 side topic이지만, 수능도 마찬가지다. 물론 강사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각기 다른 개체이므로, 자신의 방식에 맞게 '재구성'해서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옳, 나도 모르게 '능동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왜? 이 문장의 AB '개념'은, 수동 vs. 능동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AB의 범주 개념을 항상 대립항 연습을 하면서 잘 잡아보도록 해야 한다.

To accomplish **that**(B), the organism **must** go beyond the mere ability to form **internal representations**(A), the models of the **world outside**(A).

그것을 달성하려면 유기체는 내적 표상을 형성하는 단순 능력을 넘어서야 한다, / 즉 외부 세계의 모델을.

선택 첫 문장은 B 문장이므로, 'that'도 B 문장. 그러니 must다. 현대, 'go beyond'라는 표현은 뒤에 'A'가 나오는 뉘앙스를 준다. 왕왕 나오니 챙겨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영어 1등급을 받으려면 단지 해석하는 걸 넘어서야해!'라고 하면, 해석하는 건 로직 알파벳이 무엇인가? A이다. 그럼, 자연스럽게, B를 뒤에 말해줘야 한다. 선택의 경우 '영어 1등급을 받으려면 단어의 논리적 연결이 필요하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경우 단어의 논리적 연결이 B.

그래서 'internal representation'을 A로 잡긴 했는데, 말이 어렵다. 내적 표상이 머야.. 너무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애는 'A'일 뿐임을 확인하고 넘어가자. 답내는 데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다.

It **must** **acquire** the ability to \_\_\_\_\_(B).

그것(유기체)은 이러한 모델을 조작하고 변형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선택 go beyond로 사실상 'not A'를 했으니, 빈칸 문장 (but) B 논리가 나온다. 빈칸은 B고, 이미 내가 첫 문장에서 not A but B를 잡았으니, 답을 고를 수 있다. A는 그대로 카피하는 거, B는 재구성하는 '능동적' 행위. 선지 구성이 아주 예쁘게도, 정답인 2번만 내가 '조작, 변형'하는 능동적 행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A' 선지이다. 답은 여기서 나온다.

We can argue that **tool-making**(B), one of the **fundamental distinguishing features** of **primate cognition**, depends on **this ability**(B), since a tool does **not** exist in a **ready-made form**(A)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as to be imagined**(B) in order to be made. The **neural machinery** for **creating and holding 'images of the future'**(B) wa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tool-making, and thus for **launching** human civilization. [3점]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 영장류 인지력의 근본적인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인 도구 제작이, 이 능력에 의존한다고, / 왜냐하면 도구는 자연 환경 속에 이미 만들어진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 만들어지려면 상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미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보유하는 신경 기계는 도구 제작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 따라서 인간 문명의 시작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다.

선택 빈칸 문장에서 B를 못 잡았다면, 이 부분을 더 읽어서 B를 이해할 수 있겠다. 아, 도구를 만드는 것은, 그리고 미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기성(ready-made, A)' 형태가 아니라, '상상(B)'하는 능동적 행위의 산물이거나. 체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을 떠올리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 멍멍이 소리 그만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능동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선지, 즉 2번으로 가자!

① mirror **accurate**(A) images of the world outside(16%)

외부 세계의 정확한 이미지를 반영하는

② **manipulate and transform**(B) these models

이러한 모델을 조작하고 변형하는

③ **visualize the present reality as it is**(A) (17%)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각화하는

④ **bring the models back from memory**(A, off)

그 모델을 기억에서 되가져오는

⑤ **identify and reproduce past experiences faithfully**(A)

과거의 경험을 충실히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 Summary ◆

빈칸 정답: ③번. | 어법 정답: ③번.

- ① P: 많은 기술적, 의학적 발전은 초기에 반대에 직면함
- ② 과학자든 과학자가 아닌든 반대자는 항상 있었고, 이 반대자들이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야 이 P가 해결됨
- ③ 물론 우리가 의학 발전으로 많은 이득을 얻었지만, 이러한 발전들은 대부분 많은 저항(P)을 겪음!

◆ Vocabulary ◆

- |                  |                      |             |               |
|------------------|----------------------|-------------|---------------|
| 1. paradox       | 9. see the light     | 1. 역설       | 9. 마침내 이해하다   |
| 2. biomedical    | 10. innumerable      | 2. 생체 의학의   | 10. 셀 수 없이 많은 |
| 3. breakthrough  | 11. therapy          | 3. 획기적 발전   | 11. 치료(법)     |
| 4. revolutionize | 12. transformative   | 4. 혁명을 일으키다 | 12. 변화시키는     |
| 5. allude to N   | 13. resistance       | 5. ~을 암시하다  | 13. 저항        |
| 6. triumph       | 14. organ transplant | 6. 승리를 거두다  | 14. 장기 이식     |
| 7. convince      | 15. fertilization    | 7. 확신시키다    | 15. 비옥화, 수정   |
| 8. opponent      | 16. hold true        | 8. 반대자      | 16. 유효하다      |

◆ Shean.T's Grammar ◆

(A) 수일치. A paradox of human culture is that에서 that절의 동사 수일치를 물어보는 것이다. breakthroughs를 수식하는 that절을 묶고 나면, 주어는 'many of the technological and biomedical breakthroughs'가 된다. 따라서 복수인 have!

(B) 능동 vs. 수동. 의미적으로는 사실(a fact)은 암시가 '되는' 것이고, 문법적으로는 뒤에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 by가 나오므로(전치사 to는 자동사 allude를 타동사처럼 쓰기 위한 전치사) 수동 형태인 alluded가 되어야 한다.

◇ (C) 동사 vs. 준동사. 접속사 and 뒤에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므로 the same이라는 주어의 동사가 와야 한다. holds!

◆ Interpretation & Comment ◆

출처 수특영어.15강.3번

①

A **paradox** of human culture is that many of the technological and **biomedical breakthroughs** that **revolutionized** how and how long we live have been **strongly opposed** at their **inception**(P).

인간 문화의 역설은 / 기술 및 의생명의 획기적 발전 중 다수가 /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근본적으로 바꾼 / 그 초기에는 반대가 심했다는 것이다.

**선택** 문장이 길지만 제발 심플하게 읽으셔야 한다. 아 많은 의학적 발전이 반대라는 P에 직면했구나..

②

This(P) is true **not only** of those who may not understand the science behind each breakthrough, **but** of scientists — a fact **alluded to** by the physicist Max Planck: “a new scientific truth does **not triumph** by **convincing** its **opponents** and making them **see the light**, **but rather** because **its opponents**(P) eventually die, and **a new generation grows up that is familiar with it**(S).”

이것은 사실이다 / 각각의 획기적인 발전의 이면에 있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 과학자들에게도 / — 이는 물리학자 Max Planck가 먼저 말하는 사실이다 /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 / 그것의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마침내 이해하게 함으로써, / 그보다는 반대자들이 결국에는 죽고, 그것에 친숙한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라고.

**선택** 긴- 문장에 걸쳐 not A but B라는 논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AB는 P를 부연하는 '세부적 로직'이라는 걸 인지 하셔야 한다. 그저 발전이 반대에 직면한다는 P가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과학자들 모두에게 true이고, 따라서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이 반대자(P)들을 설득해가 지고는 안 되고 이들이 아예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게 S.. 라고 읽으시면 되겠다. PS 로직을 핵심으로 잡고 읽자.

③

Most of us are alive today only because we have benefited from the **innumerable** advances in public health and medicine over the last century(S), from vaccines and antibiotics to modern surgical techniques and cancer **therapies**. **Yet** most **transformative** biomedical advances have met with significant **resistance**(P), from vaccines to **organ transplants** and in vitro **fertilization**, and today the same **holds true** for stem-cell research.

\* inception: 초기 \*\* antibiotics: 항생제 \*\*\* in vitro fertilization: 시험관 수정  
우리를 대부분은 오늘날 살아 있다 / 오로지 공중 보건과 의학에서의 셀 수 없이 많은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 지난 세기 동안, / 백신과 항생제에서부터 현대적인 수술 기법과 암 치료법에 이르는. / 그러나 대부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생명의 발전은 상당한 저항에 부딪혀 왔다, / 백신에서부터 장기 이식과 시험관 수정에 이르는, / 그리고 오늘날에는 똑같은 것이 줄기세포 연구에도 딱 들어맞는다.

**선택** Yet 앞뒤로 로직을 크게크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 Yet 앞은- 우리가 의학 발전으로 개이득!을 보았다는 S 쪽의 문장. 따라서 Yet 뒤 빈칸 자리에는 P가 나와야 하겠다. 이 지문에서 말하는 P는? 바로 의학 발전이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 그대-로 3번으로 가셔야 한다. 지문에 있는 P를 그대로 넣어야지 내가 마음대로 상상한 P 선지를 넣으시면 안 된다.

① have turned out to be in vain(P, but off)

헛된 것으로 판명났다

② are not achieved by scientists alone(off)

과학자들만으로 성취되지 않는다

③ have met with significant resistance(P)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다

④ are followed by disastrous side effects(P, but off)

재앙적인 부작용이 뒤따른다

⑤ have brought a new paradigm to human culture(off)

인간 문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 Shean.T's Comment ◆

정답: ④번.

\* 소재: EBS 원문은 많은 의학적, 기술적 발전이 저항에 부딪혔다는 P를 서술한 지문이다. 해당 간접연계 지문도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에 대한 P를 서술하는 한편, 이에 더 나아가 S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화적으로 잘 간접연계 된 지문이라 할 수 있겠다.

① 주어진 문장: 역점으로 시작하니 로직에 집중하자.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술 불안을 일으키는 P!!! 문장이다. 아주 평가원스럽다. 이 앞 문장의 로직 뉘앙스는 S였어야 한다. 이를 머릿속에 박고 지문으로 가자.

② 지문: 1번 앞 문장의 기술 혁신 저항을 P로, 1번 뒤에서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을 S로 잡자. 이제 2번 뒤가 조금 애매해서 flexibility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다. '역설'이라고 하면서 P와 S가 공존하고 있다. 보통 이 경우 조금 더 P에 치우친 경우가 많은데, 우선 보류하고 다음 문장을 읽자. This!에 반응. 앞 문장을 받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와 S가 다 등장한다. 아, 필자는 P와 S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어쨌든 S가 있으니 좀 더 희망적이라는 입장이거나, 사고를 수정한다. 4번 뒤 This에 또 집중. 읽어보니 기술 채택 속도가 느리다는, 뻔박 P 문장. 헌데 4번 앞은 S 문장이다. 로직 총돌!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 S에서 P로 로직을 전환해주어야 한다.

◆ Vocabulary ◆

1. manifestly	9. reference	1. 분명하게	9. 언급, 참조
2. resistance	10. paradox	2. 저항	10. 역설
3. address(v)	11. mount	3. 다루다	11. 시작하다
4. a variety of	12. accelerate	4. 다양한	12. 가속화하다
5. opposition	13. adoption	5. 반대	13. 입양, 채택
6. cliché	14. artificial	6. 상투적인 말	14. 인공의
7. futile	15.	7. 헛된, 소용없는	15.
8. dismissive	16.	8. 무시하는	16.

◆ KISS Logic & Interpretation ◆

4.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However**, the rate of change is now **manifestly** so rapid that it is creating **technological anxiety(P)**.

**Resistance** to innovation(P) is a **problem** because it may **deny** society the **opportunity(P)** to use new technologies to **address a variety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governance challenges. ( ① ) **This is why** it is **important** for society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ources of **opposition** to technology(S) rather than **rely on clichés(P)** such as “resistance is **futile**” or a **dismissive reference** to Luddites. ( ② ) There is a **paradox** of **mounting** economic and ecological challenges(P) and **accelerating** technological advancement(S). ( ③ ) **This** would suggest that humanity has more opportunities to **address the challenges(P)** using **new technologies(S)**. ( ④ ) **This** could lead to low rates of technology **adoption** and general disenchantment with innovation(P). ( ⑤ ) There is general disquiet over emerging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gene editing, robotics, drones and 3D printing.

\* disenchantment: 각성 \*\* disquiet: 불안, 동요

그러나, 오늘날 변화의 속도는 명백히 너무 빨라서 / 기술적인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혁신에 대한 저항은 문제이다 / 그것이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통치에 관한 도전을 다루는. / 그래서 사회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술에 반하는 근원에 대해서 / 상투적인 말에 의존하기 보다는 / “저항은 소용없어” 같은 / 또는 Luddites를 무시하는 발언 같은. / 역설이 존재한다 / 경제적인 그리고 생태학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것에 관한 / 그리고 기술적인 진보를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 이는 시사할 것이다 / 인류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을 /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도전을 다루는. / 이는 더 느린 기술 채택 속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느린) 혁신에 대한 각성으로. /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 불안이 존재한다 / 인공 지능, 유전자 편집, 로봇 공학, 드론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32(48%)

Politics cannot be suppressed, whichever policy process is employed and however sensitive and respectful of differences it might be. In other words, there is no end to politics. It is wrong to think that proper institutions, knowledge, methods of consultation, or participatory mechanisms can make disagreement go away. Theories of all sorts promote the view that there are ways by which disagreement can be processed or managed so as to make it disappear. The assumption behind those theories is that disagreement is wrong and consensus is the desirable state of things. In fact, consensus rarely comes without some forms of subtle coercion and the absence of fear in expressing a disagreement is a source of genuine freedom. Debates cause disagreements to evolve, often for the better, but a positively evolving debate does not have to equal a reduction in disagreement. The suppression of disagreement should never be made into a goal in political deliberation. A defense is required against any suggestion that \_\_\_\_\_ . [3점]

\* consensus: 합의 \*\* coercion: 강압

- ① political development results from the freedom of speech
- ② political disagreement is not the normal state of things
- ③ politics should not restrict any form of difference
- ④ freedom could be achieved only through tolerance
- ⑤ suppression could never be a desirable tool in politics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영어) ◆

◆ Vocabulary Test ◆

- |                            |     |
|----------------------------|-----|
| 1. politics                | 1.  |
| 2. be respectful of        | 2.  |
| 3. proper                  | 3.  |
| 4. institution             | 4.  |
| 5. consultation            | 5.  |
| 6. participatory           | 6.  |
| 7. disagreement            | 7.  |
| 8. promote                 | 8.  |
| 9. assumption              | 9.  |
| 10. state of things        | 10. |
| 11. subtle                 | 11. |
| 12. genuine                | 12. |
| 13. evolve                 | 13. |
| 14. political deliberation | 14. |
| 15. suggestion             | 15. |
| 16.                        | 16. |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32(48%)

Politics cannot be suppressed(A), whichever policy process is employed and however sensitive and respectful of differences it might be. In other words, there is no end(A) to politics. It is wrong to think that proper institutions, knowledge, methods of consultation, or participatory mechanisms can make disagreement go away(A). Theories of all sorts(A) promote the view(A) that there are ways by which disagreement can be processed or managed so as to make it disappear(A). The assumption behind those theories(A) is that disagreement(B) is wrong and consensus(A) is the desirable state of things. In fact, consensus(A) rarely comes without some forms of subtle coercion(P) and the absence of fear in expressing a disagreement(B) is a source of genuine freedom(B). Debates(B) cause disagreements(B) to evolve, often for the better, but a positively evolving debate(B) does not have to equal a reduction in disagreement(B). The suppression(A) of disagreement should never be made into a goal in political deliberation. A defense is required against any suggestion that \_\_\_\_\_ (A or not B). [3점]

\* consensus: 합의 \*\* coercion: 강압

- ① political development results from the freedom of speech(off)  
정치적 발전은 언론의 자유에서 나온다는
- ② political disagreement is not the normal state of things(not B)  
정치적 의견 차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 ③ politics should not restrict any form of difference(off, 비약)  
정치는 어떤 형태의 차이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 ④ freedom could be achieved only through tolerance(off)  
자유는 관용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 ⑤ suppression could never be a desirable tool in politics(not A=B)  
억압은 정치에서 절대 바람직한 도구가 될 수 없다는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해석 및 표현) ◆

◆ Vocabulary Test ◆

- |                            |                   |
|----------------------------|-------------------|
| 1. politics                | 1. 정치적 견해, 정치     |
| 2. be respectful of        | 2. ~을 존중하다        |
| 3. proper                  | 3. 적절한, 알맞은       |
| 4. institution             | 4. 제도, 기관, 조직     |
| 5. consultation            | 5. 협의, 토의, 상담     |
| 6. participatory           | 6. 참여의, 참가하는      |
| 7. disagreement            | 7. 의견 차이, 의견 충돌   |
| 8. promote                 | 8. 조장하다, 홍보하다     |
| 9. assumption              | 9. 전제, 가정         |
| 10. state of things        | 10. 상황            |
| 11. subtle                 | 11. 교묘한, 포착하기 어려운 |
| 12. genuine                | 12. 진정한, 진짜의      |
| 13. evolve                 | 13. 전개되다, 발달하다    |
| 14. political deliberation | 14. 정치 속의         |
| 15. suggestion             | 15. 의견, 제안, 암시    |
| 16.                        | 16.               |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33(43%)

To make plans for the future, the brain must have an ability to take certain **elements** of prior experiences and **reconfigure** them in a way that does not copy any actual past experience or present reality exactly. To accomplish that, the organism must go beyond the mere ability to form **internal representations**, the models of the world outside. It must **acquire** the ability to \_\_\_\_\_ . We can argue that tool-making, one of the **fundamental distinguishing features** of **primate cognition**, depends on this ability, since a tool does not exist in a ready-made form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as to be imagined in order to be made. The **neural machinery** for creating and holding ‘images of the future’ wa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tool-making, and thus for **launching** human civilization. [3점]

- ① mirror accurate images of the world outside
- ② manipulate and transform these models
- ③ visualize the present reality as it is
- ④ bring the models back from memory
- ⑤ identify and reproduce past experiences faithfully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영어) ◆

◆ Vocabulary Test ◆

- |                            |     |
|----------------------------|-----|
| 1. element                 | 1.  |
| 2. reconfigure             | 2.  |
| 3. internal representation | 3.  |
| 4. acquire                 | 4.  |
| 5. fundamental             | 5.  |
| 6. distinguishing          | 6.  |
| 7. feature(n)              | 7.  |
| 8. primate                 | 8.  |
| 9. cognition               | 9.  |
| 10. neural machinery       | 10. |
| 11. prerequisite           | 11. |
| 12. launch                 | 12. |
| 13.                        | 13. |
| 14.                        | 14. |
| 15.                        | 15. |
| 16.                        | 16. |

◆ KISS Logic 복기 ◆

출처 2018.6.33(43%)

To make plans for the future, the brain **must** have an ability to take certain **elements** of prior experiences and **reconfigure** them(B) in a way that does **not copy** any actual past experience or present reality exactly(A). To accomplish that(B), the organism **must go beyond** the mere ability to form **internal representations**(A), the models of the world outside(A). It **must acquire** the ability to \_\_\_\_\_(B). We can argue that tool-making(B), one of the **fundamental distinguishing features** of **primate cognition**, depends on this ability(B), since a tool does **not** exist in a ready-made form(A)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has to be imagined(B)** in order to be made. The **neural machinery** for creating and holding 'images of the future'(B) was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tool-making, and thus for **launching** human civilization. [3점]

- ① mirror accurate(A) images of the world outside(16%)  
외부 세계의 정확한 이미지를 반영하는
- ② manipulate and transform(B) these models  
이러한 모델을 조작하고 변형하는
- ③ visualize the present reality as it is(A) (17%)  
현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각화하는
- ④ bring the models back from memory(A, off)  
그 모델을 기억에서 되가져오는
- ⑤ identify and reproduce past experiences faithfully(A)  
과거의 경험을 충실히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 내가 해석이 어려웠던 문장(해석 및 표현) ◆

◆ Vocabulary Test ◆

- |                            |              |
|----------------------------|--------------|
| 1. element                 | 1. 요소        |
| 2. reconfigure             | 2. 재구성하다     |
| 3. internal representation | 3. 내적 표상     |
| 4. acquire                 | 4. 습득하다      |
| 5. fundamental             | 5. 근본적인      |
| 6. distinguishing          | 6. 독특한       |
| 7. feature(n)              | 7. 특징        |
| 8. primate                 | 8. 영장류       |
| 9. cognition               | 9. 인지(력)     |
| 10. neural machinery       | 10. 신경 기제    |
| 11. prerequisite           | 11. 전제 조건    |
| 12. launch                 | 12. 시작(출시)하다 |
| 13.                        | 13.          |
| 14.                        | 14.          |
| 15.                        | 15.          |
| 16.                        | 16.          |